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5월 28일) 2024년 7월 3일 수요일



6월 25일 시작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아카데미 첫 강의에 앞서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가령 수습기자

진우 스님 선명상 직강, 사회 리더도 반했다

김내영 기자, 김가령 · 김민재 수습기자

사회 리더들에게 선명상의 진면목을 일러주기 위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첫 강의가 6월 25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시작됐다. 사회 각층 리더들은 진우 스님의 강의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내용을 메모하며 이 시대 선명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두려움 없애는 힘을 가진다'를 주제로 한 이날 강의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 국회 정각회장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손복조 대우증권 대표, 이효구 서강대 명예교수, 정몽훈 성우전자 회장, 최현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선명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강의에서 진우 스님은 직접 선명상 강사로 나서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젊은 불자들이 점차 줄어가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불교 침체의 심각성을 느껴왔다. 그래서 늘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불교 고유의 선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을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평안을 줬다. 이번에도 생소한 불교용어를 쓰지 않고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선명상 강의로 모두에게 '스스로 마음을 편안케 하는 힘'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핵심이 결국 '고통을 없애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스님은 "선명상을 알면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고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선명상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고집스러운 나만의 생각과 패턴, 즉 업장이 굳어져 삶이 허무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에 따르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즐거움에는 괴로움이라는 대가가, 행복에는 불행이라는 대가가 뒤따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는 말처럼 모든 감정은 윤회 반복한다. 때문에 스스로 '고락'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건 오로지 '나'의 몫이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선명상 아카데미' 첫 강의 성료
6월 25일, 사회 각계 350명 동참
선명상 핵심, '고통 벗어나는 것'
"5초 동안 우선 멈춤하라" 조언
"쉽고 실생활에도 도움돼" 호평

스스로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진우 스님은 그것을 '선명상'으로 꼽았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분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늘 감정을 살필 수 있을 때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능수능란하게 집착을 내려놓는 그 지점이 선명상"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첫 번째 실천 방법으로 '5초 우선 멈춤'을 안내했다. 5초간 멈춤의 시간을 통해 감정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명상이다. 스님은 "심리적으로 사람이 화를 내는 데 0.2초가 걸린다고 한다. 0.2초 안에 감정이 요동친다는 의미다. 그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5~6초가 걸린다"며 "화가 났을 때 5초 동안 우선 멈춤을 하면 화의 강도가 줄어 2차 3차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끝으로 "고락이라는 두 감정을 완전히 없애고 중도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해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명상'의 의미와 효과, 방법에 관련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화가 난 순간 5초 우선 멈춤 방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우 스님은 "화두라는 것이 분별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0.2초 만에 분별이 생기면 5초 안에 사라지게 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방하착(放下着, 놓아 버리다)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습관이 돼 깨우칠 수 있다"고 격려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진우 스님의 열띤 강의에 참석대중의 호평이 쏟아졌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진우 스님이 선명상을 쉽고 생활에 접목 가능하게끔 해설해주셨다"며 "선명상은 불자를 행복으로, 나아가 국민을 평화로 이끄는 공익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많은 사람이 선명상과 가까워질 수 있던 시간이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선명상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으며, 이상훈 교수불자연합회장은 "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우선 멈춤' 등 생활에 도움 되는 수행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고 말했다.

강의를 토대로 포교현장에서 선명상을 활용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봉은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담당하는 법진 스님은 "선명상 중 첫 단계인 '5초 우선 멈춤' 명상은 감정 조절이 힘든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세나 호흡 등 형식적인 부분이 필요 없어, 어린이들에게 장점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관 대종사 문자 사리 '가산불교대사림' 완간

가산불교硏 17~20권 간행
40여 년 만에 대사림 완간
표제어 11만 9478항 '大作'

현대 한국불교 최고 학승(學僧)으로 평가받는 가산당 지관 대종사의 문자 사리 〈가산불교대사림〉이 40여 년만에 완간됐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제17~20권을 최근 출간해 발간 작업을 완료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불교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림〉은 지관 대종사가 원장으로 주석하던 연구원이 1982년부터 진행해 오던 대작불사다. 표제어 발굴 및 15만 표제어 카드 작업에만 9년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1999년 1, 2권 출간을 시작으로 1~2년에 한 권꼴로 〈가산불교대사림〉이 출간됐다.

총 20권으로 완간된 〈가산불교대사림〉에 수록된 표제어는 11만 9487항이며, 도판은 6197개체, 200자 원고지로는 34만 286매에 달한다. 당장 일본에서 간행된 〈망월불교대사전〉이 7136항, 대만의 〈불광대사전〉은 2만여 항임을 감안하면 지관 대종사의 〈가산불교대사림〉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연구인력은 원내 25인, 원외 20인이 참여했으며, 40년간 연인원을 환산하면 65만 7000명이 불사에 동참했다. 총 사업비는 385억 원이 소요됐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불교사상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사전의 범주를 근본불교술어는 물론, 범불교권 국가에서 특수하게 변형·토착화되거나 새로이 창출된 각종 술어도 포함했다. 표제어의 한글 순은 물론, 내용 기술에 있어 실질적인 한글화를 도모해 누구나 쉽게 활용가능한 대중적 사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송(合誦)·역경장(譯經場)·논강(論講) 등 다자결집(多者結集)을 토대로 근대연구성과를 비평적으로 수용해 한국불교학과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가산불교대사림〉을 주요 불교기관과 국회도서관,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해왔으며, 올해 출간한 제17~20권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제14대 총인에 덕일 정사 추대

총인추대위원회서 만장일치로
8월 1일부터 임기 5년 시작



진각종 제14대 총인에 덕일(德一) 정사〈사진〉가 추대됐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6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총인원에서 제14대 총인추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덕일 정사를 총인으로 추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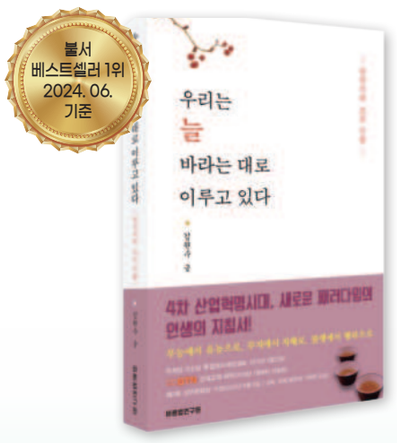
추대위원회에는 경정 총인예하 등 인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통리원장 도진 정사,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현정원장 능원 정사, 교육원장 효명 정사 등이 참석했다.

진각종 제14대 총인으로 추대된 덕일 정사는 1970년 종비장학생으로 종단에 입문해 진기 1986년 최정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상석·원선·대원·보원심인당 주교와 홍교부 문화국장, 심인고등학교 정교, 교육원 교법국장, 유지재단 이사, 제9, 13, 14, 15대 종의회 의원, 제14대 종의회 의장, 위덕대 불교대학원장, 위덕대 정교실장,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4월 종사에 품수됐으며, 현재 서울 무애심인당 주교와 인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한편, 제14대 총인 덕일 정사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5년이며, 법통승수식을 거행한 후 직무에 임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선지식 김원수 법사
"금강경 해설의 대가"
(BBS NEWS 2023. 04. 03)
"우리 시대의 도인"
(주간조선 2013. 04. 01)
"이 시대의 참스승"
(EBS 2010. 11. 16)
"2024 붐서 베스트셀러 1위 저자"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스테디셀러 2024 개정판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금생에 즉시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가르침
무소유의 불자에서 큰 부자 불자로
재앙을 즉시 축복으로 바꾸는 불자로
을이 아닌 갑으로 사는 불자가 되어
부처님의 무량대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NAVER YouTube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


붐서 베스트셀러 1위 2024. 06. 기준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영문판 The CREATORS)
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불자들 뿐만 아니라, 타종교인,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 계발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도서출판 바른법연구원 031) 963-2871~2

“한일 불교계 원력 모아 불법 홍포”

제4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6월 27일 일본 도쿄 증상사서
양국 우호증진 · 평화공존 기원
진우 스님 “선명상 대중화” 강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본 도쿄 증상사에서 열린 제4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 이후 기념사진을 찍는 한일 불교계 대표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한국불교와 일본불교가 한 자리에 모여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며 양국의 우호증진 및 분단과 대립, 전쟁과 갈등을 고통받는 이들의 평화공존을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藤田隆乘])는 6월 27일 일본 정토종 대본산 증상사(도쿄 소재)에서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인류평화를 염원하는 불교문화교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제4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학술강연회 및 공동선언문 발표로 진행됐다. 한일 양국 불교대표단 약 150명이 석한 이번 교류대회에서 한일 불교계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져온 신의를 바탕으로 인류가 당면한 과제에 불교적인 혜안(慧眼)을 내어 두 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대회인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대립,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세계를 한 집안으로, 인류를 한 몸으로 보는 불교의 ‘원융(圓融)’ 정신과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화쟁(和諍)’ 정신이 오늘날과 같은 혼돈과 격변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르침”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의 전통인 선수행(禪修行)에 기반해 현대적 명상법으로 프로그램한 ‘선명상’은 종교를 넘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근본이며,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선명상 대중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후지타 류조 스님은 “부처님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25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져 지리적, 민족적 장벽을 넘어 각자 독자적인 불교문화로 발전했다”면서 “현대적 곤경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힘을 기르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일본 불교의 식으로 시작해 양국 여성부 회장의 헌다, 회장스님 인사, 축원문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이어 양측 대표단은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진행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정토종 공생재단 이사장 사토 유키오 씨가 발제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일 불교계가 부처님의 자비 · 자애의 정신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개인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명상 보급에 노력하겠다”면서 “위기에 처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불법 홍포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화성 공장 화재에 불교계 애도 잇따라

조계종, 희생자들 극락왕생 발원
태고종, 안전사회 위한 관심 촉구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애도의 메시지가 불교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은 6월 25일은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우봉 스님 명의로 애도문을 발표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전지와 같은 신규 에너지원의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통해 불행한 희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관련 업계 역시 철저한 예방으로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애도문을 발표했다. 상진 스님은 “폭발 화재 사고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19명을 포함한 22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편안히 쉬기를 바라며,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교태고종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6월 26일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왕생성불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체건 수많은 대중이 모이는 어떠한 곳이든 생명을 담보할 안전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다.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고처럼 안타깝게도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하는 산업현장의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에 진각종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위로와 함께 “이번 사고 역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응으로부터 빚어진 참사”라며 “정부와 회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산업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 공개

단일 의사결정 체계 구축 중점
총무원장 직속 기관 설립 ‘눈길’
7월 3일 회의서 세부 논의키로

현행 총무원·교육원·포교원 3원 체제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중심 1원 체제로 변경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첫 그림이 나왔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6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8대 중앙종회 전반기 종단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조직개편은 종단개혁 30년을 맞아 종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으로 종단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불교중흥을 향한 전법과 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기본 행정부서를 통합해 단일화된 종단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법, 대사회, 문화콘텐츠 등 전문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직도에는 기존 포교원의 기능을 전법포교부로, 교육원의 기능을 수행 교육부로 재편하는 등 기존 ‘12부실 17국’을 ‘11부실 17국’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연구와 인사교육, 출가장려, 콘텐츠 진흥, 종무지원, 건축불사를 신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총무원장 직속기관을 두는 것이 눈길을 끈다. 불학연구소와 포교연구실, 문화팀을 통합해 종단 통합 종책연구소를 출범하고,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종단 싱크탱크로서 총무원장 직속 연구기관인 ‘조계종 연구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무원장 직속으로 출가장려위원회를 출범, 출가자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홍보실을 직속기관으로 둬 종단 및 불교의 대사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해 교구 행정 연계 및 사찰 지원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사찰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교구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사찰 세무, 노무, 행정 지원 전담팀이 신설된다. 교구 행정을 강화하고 중앙과 교구 행정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 종무원 파견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위원들에게 “3월 임시회에서 발의된 종헌 개정이 종헌 문턱을 넘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종헌 개정으로까지 가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논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디테일하게 고민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7월 3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 9월 10~14일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6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1회 임시회 일정을 9월 10~14일로 확정했다.

임시회에서는 △종법 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사회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의 건 △영규대사 및 의승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건 △원로회의 의원 추천 건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사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 미래, 군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군승 7명, 진우 스님에 임관 신고
“전법에 선봉장 역할 해달라”



2024년도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1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종합행정학교에서 임관하는 7명의 신임 군승들이 6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임관 신고식을 가졌다.〈사진〉

악수로 군승들을 맞이한 진우 스님은 “여러분은 부처님의 명을 받아 뜻을 펼칠 훌륭한 장교이자, 불자와 종단 미래를 책임질 인재”라며 “부처님 법을 전파해 장병들이 힘과 용기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봉장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군승들은 각각 소속과 근무지를 알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했다. 영관 김동규 군승법사는 “설레고, 걱정도 되지만 시대의 언어로 불교를 알리는 데 진력하겠다”고, 혜강 백준엽 군승법사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군불교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2024년 신임 군승 고불식’을 봉행했다. 7명의 신임 군승들은 군불교 활성화를 사명으로 전법·포교의 길에 당당히 나서게 됐음을 부처님께 고했다.

김내영 기자

2024 청소년 마음등불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빛나는 나를 위해
내 삶의 주인공인 나를 위해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2024년 4월 ~11월



2024년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진행 일정

번호	프로그램명	일정	지역	사찰 · 단체	연락처
1	비 온 뒤 맑음	3월 5일(화)~4월 30일(화)	서울	정각사	010-6523-8889
2		5월 7일(화)~7월 16일(화)	서울		
3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 여행	7월 27일~28일(토일)	서울	관음선원	010-5327-8146
4		8월 17일~18일(토일)	서울		
5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지금 여기에, 숨과 쉼’	6월 22일(토)	서울	(사)한국명상상담심리학회	010-2653-3917
6		6월 29일(토)	서울		
7		7월 12일(금)	서울		
8		7월 13일(토)	서울		
9		9월 7일(토)	충남		
10		9월 14일(토)	전남		
11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7월 20일(토)	서울	금강선원 (탄허기념 불교박물관)	02-445-8486
12		8월 10일(토)	서울		
13	신통방통 육방통	8월 9일~10일(금토)	서울	충정사 (통담선원)	02-2279-5538
14		8월 24일~25일(토일)	서울		
15	EGG 깨뜨림, 잠자는 너의 잠재력을 깨워라!	7월 20일~21일(토일)	대전	(사)자비명상	010-5300-8085
16		7월 20일~21일(토일)	서울	(사)자비명상	010-9867-4221
17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7월 21일~22일(일월)	경북	자비선사	010-4838-8874
18		7월 27일(토)	서울		
19		8월 3일(토)	대구		
20	나를 찾는 선 ‘마음이 행복한 나를 찾아봐’	7월 13일~14일(토일)	부산	(사)동련	010-5332-0853
21		7월 27일~28일(토일)	양산		
22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 있는 명상	6월 7일~8일(금토)	서울	봉인사	010-2570-5585
23		9월 10일~11일(화수)	서울		
24	통(느낌)! 통(마음)! 행복 명상캠프	7월 20일(토)	전남	봉불사	061-454-2303
25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 (부모 · 자녀 1day)	8월 25일(일)	경기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	010-5555-7103
26	마음 톡(TALK) 명상 명상아 놀자!	7월 12일(금)	부산	미타선원	010-3852-7118
27	청소년 마인드케어 명상힐링캠프	8월 15일(목)	울산	정토사	010-4662-0108
28	나를 개발하는 선 ‘득템명상’	7월 27일~28일(토일)	경기	온새미로붓다	010-9414-9331
29	Z & α 세대만의 ‘효’ 인성교육	8월 10일(토)	경남	(사)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010-3131-1319
30	청소년 행복찾기 선과 명상	8월 25일(일)	세종	보현정사	010-8777-4191

※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동련 · 금강선원 ·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 봉인사 · (사)자비명상 · 자비선사 · 관음선원 · 충정사 · 정각사 · 봉불사 · 마인드힐링명상상담센터 · 미타선원 · 정토사 · 온새미로붓다 · (사)김해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보현정사(※ 16곳 무순)

메머드급 '학생연합' 출범…2000여 불자 구성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발족 기념법회 봉행

15개 단과대, 대학원 동아리 연합
국내 최대 규모 학생신행연합체
9월 예정 '영캠프' 기획 등 주도
돈관 스님 "팔정도 실천을" 법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00여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학생신행연합체가 출범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26일 교내 정각원에서 '불교학생연합 발족 기념 6월 동국인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불교학생연합'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행연합조직으로 단일 대학에서는 최대 규모의 '학생신행연합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들 학생연합은 오는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축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서 류용현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동국청년불자회장은 불교학생연합의 발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류용현 회장은 "현재 2031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불교학생연합은 연등행렬, 템플스테이, 자체 법회 및 각종 문화 법회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교학생연합은 단순한 학생모임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9일 영캠프 기획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9월 24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나가는 청년불자들의 축제의 장인 영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영캠프를 통해 불교학생연합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6월 26일 교내 정각원에서 '불교학생연합 발족 기념 6월 동국인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직후 기념촬영 모습.

가장 처음 창립된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의 문정민 회장은 학생들을 대표해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감사편지를 낭독했다. 문정민 회장은 "불교학생연합 발족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며 이 뜻 깊은 시작에는 이사장 돈관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손수 만들어 주신 장학금 덕분"이라며 "스님의 이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각각의 단과대학에서 시작한 작은 날갯짓은 어느덧 오늘 불교학생연합발족이라는 커다란 마음으로 모여 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며 "이사장스님께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은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팔정도'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개경게'를 독송한 돈관 스님은 "1겁은 가로세로 40리의 큰 바위에 스님의 장삼 자락이 스쳐서 그 바위가 전부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다. 부처님 법은 1000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부처님이 설하신 보편타당한 진리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은 귀한 인연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동국대의 로고 등은 모두 '팔정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며 "팔정도의 여덟 가지 가르침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일체화하고 있다. 꼭 불자라면 실천해야 하는 윤리규범이기도 하다"고 실천을 당부했다.

앞서 윤재웅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창립하며 보여준 어마어마한 속도전과 변화로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과 불자들이 동국대를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의 중요한 풀뿌리라고 생각하고 잘 전법하여 훌륭한 나무로 성장한 불교 인재들이 숲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과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지도교수, 임원진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28대 중앙신도회장에 정원주 회장 만장일치 추대

임기는 10월 1일부터 4년간
소통강화 · 체계 정비 등 공약

조계종 제28대 중앙신도회장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사진〉이 선출됐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6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신도회 제27-5차 대의원총회에서 제28대 중앙신도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정 회장의 임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4년이다.



정원주 제28대 중앙신도회장은 "지금까지 오직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사업하고 사회 활동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혜택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며 "오직 종단과 신도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불자들의 땀과 열정이 헛되지 않게 역할을 잘 해내겠다"며 "지혜가 필요한 일에는 꼭 종단과 선배 법우들의 조언과 소통을 거쳐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 회장은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중앙신도회의 정책공약으로 △종단 외호를 위한 종단과 소통강화 및 체계 정비 △선명상 대중화 등 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신도회 역할 재정립 △조계종도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 확립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내걸었다.

이에 앞서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은 "오늘은 중앙신도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미흡한 정책은 보완하고, 정비해 신도회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신임 회계감사로 남창현 한국세무사불자회장을, 업무감사로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김내영 기자

'더 좋은 동국' 향한 마음, 211억 원 모았다

동국대, 6월 21일 후원의 밤 개최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절실한 발원에 감응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였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21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제스티홀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동국 발전이 불교중흥이요,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절인연이 닿은 좋은 기회, 법인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총동창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학교 발전에 더욱 정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식사에서 동국발전 불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1906년 개교 이래 후원자들의 자비의 원력들은 오늘의 동국대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이러한 원력과 실천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창립되고 있으며, 회원 수가 현재 서울캠퍼스는 2500명이 넘어섰고, WISE캠퍼스는 1000명에 달한다. 불교적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을 주는 것은 후원자들의 한결 같은 공덕"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종단. 학교법인, 대학, 동문 그리고 후원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다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더 좋은 동국을 응원해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월 21일 열린 동국대 후원의 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과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며 후원에 동참했다. 앞서 각계각층의 사전 후원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후원의 밤을 통해 약 211억 원의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중일 기자

"한반도 평화 발원…적대행위 중단 돼야"

민추본 · 사노위, '평화기원법회'
갈등 멈추고 화해 대화 촉구

잇따른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등으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공존과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사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민추본)와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사노위)는 6월 2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기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는 남북의 강대강 맞대응이 또 다른 갈등만 부추길 뿐 남북 관계 개선에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 군사충돌을 야기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은 멈춰야 하며, 접경지역 일대에서 충돌을 부추기는 모든 적대행위는 중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노위 스님들의 집전으로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모으는 다라니기도 3독에 이어 동참자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불자들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부처님의 실천행을 등불 삼아 앞으로도 평화의 외침을 확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일에 계속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평화기원법회는 평화의 연등과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됩니다' '적대 멈추고 평화로'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종로 일대를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내영 기자



‘힙한 불교’ 이번엔 나란다 축제서 만난다

은정문화진흥원 · 조계종 포교원 제16회 나란다 축제 요강 발표

오는 8월 30~31일 동국대 일원서
기획위원단 통해 학생 참여 확대
교리경시대회, 진학상담 등 ‘풍성’
상월결사 안거체험, 걷기순례 진행
대학생 참가하는 국악경연대회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나란다 축제는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참여형 축제로 확장된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성월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6일 26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6회 나란다 축제’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 나란다 축제는 8월 30일, 31일 양일간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부문별 참가 접수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올해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기획위원단의 활동이다. 14, 15회 나란다 축제에 이어 올해 3기째를 맞는 청소년기획위원단은 나란다축제 기획·운영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중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8월 중순 경 1박 2일의 청소년기획위원단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획·홍보·봉사·평가팀으로 나눠 활동하며 행사기획 및 진행, 평가와 SNS 홍보활동 등을 진행한다.

나란다 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용주사 주지·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은 “이전과는 달리 청년들의 불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이 ‘K붓다’임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통의 ‘불교교리 경시대회’ 중고등부는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동국대 학림관 고사장에서 펼쳐진다. 시험문항은 중등부 40문항, 고등부 45문항이 출제되며,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문제는 동국대 건학이념위원회가 개발한 〈불교수업〉을 기반해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불교신행·생활 등에서 출제된다. 특히 올해의 불교교리 경시대회 예선은 7월 초에 실시돼 더 내실있는 불교교리 경시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은 결선점수 합산제도와 OX퀴즈 방식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오래 함께 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진다. 교재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초등부 기출문제〉로 일원화해 공부에 대한 부담도 대폭 줄였으며, 기출문제집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오전으로 옮겨져 진행된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진행된다.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상일결사 안거체험, 걷기순례 등도 축제 양일 간 진행된다. 안거체험과 걷기순례는 모두 사전신청으로 진행되며, 더욱 깊게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동국대 일원서 진행되는 진학·진로 체험은 △2024년 동국대 신입생 입시경험 소개 △입학사정관의 포트폴리오 지도 △청소년 선호직업 연사 초청 특강 △연극학부 등 실기 중심 학과 연계 체험 등의 프로그램 진행된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은 ‘은정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는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본관 중강당에서 펼쳐진다. 경연대회는 기악·성악·타악으로 나눠 진행되며,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학과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합대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자에는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인 중구청장상은 100만원, 우수상인 동국대 이사장상은 50만원, 장려상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은 30만원(각 부문별 1인)의 상금이 시상된다.

“발달장애인가족 사회적 참사 멈추게 하라”

조계종 사노위 · 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 규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가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서울시청까지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사진〉

사노위 스님들과 부모연대 위원을 비롯한 500여 명의 회원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로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명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서울지부와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협의를 지속했지만, 상임에서 전부 거절당했다”며 “발달장애인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진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노위 수석부위원장 혜문 스님은 집회에서 “조계종 사노위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명권과 인권 정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부처님의 가피 아래 모든 분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도하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부모연대는 5월 2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0개 지역에서 전국 순회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노위는 부산(6월 5일), 대구(6월 11일), 충남(6월 14일), 광주(6월 17일), 전북(6월 18일), 대전(6월 20), 세종(6월 25일), 서울(6월 27일) 지역에서 연대했다. 부모연대는 전국 순회 오체투지에 연대해 준 사노위에 감사하는 의미로 6월 27일 서울 오체투지를 마친 뒤 혜문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가령 수습기자

서울 진관사,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 추모재

6월 23일, 독립운동 학술세미나
“태극기 기념관 건립” 목소리도



스님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백초월 스님의 순국 80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고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초월 스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태극기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는 6월 23일 경내 함월당과 한문화체험관에서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 추모재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사)백초월스님선양회(회장 법해 스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과 주지 법해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교수 문광 스님, 백외식 백초월 스님 종손, 박주민 국회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서울시의원과 은평구의회 의원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 다례재에서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경내 칠성각 해체보수 중 태극기가 발견된 2009년 5월 26일을 떠올렸다. 스님은 “빛바랜 태극기와 독립신문 뭉치에서 전해지는 가슴속 깊은 울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아직도 생생히 기억된다”면서 “초월 스님의 독립운동을 재조명, 추후 초월 스님의 학술 및 선양활동에 새로운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는 추모사에서 진관사에 태극기 기념관이 건립돼야할 것을 강조했다. 30여 년 전부터 백초월 스님의 불교사상과 독립운동에 대해 연구해온 김 교수는 “태극기 기념관 같은 시설이 건립돼 스님의 독립운동의 뜻을 널리 선양해야한다”고 말했다.

2부 세미나는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흙다움에서 ‘백초월 독립운동의 재인식’을 주제로 진행됐다.

‘진관사 태극기의 역학적 고찰’을 발표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은 태극기 괘상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광 스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는 수화기제(63)의 괘상을 보이고 있으며 복희팔괘와 정역팔괘의 괘상과 동일해 안정되고 완성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독립운동을 통해 해방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하나의 완성이며 음양이 완전히 배합된 복희팔괘와 미래를 예측한 계룡산에서 나타난 정역팔괘의 괘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호국영령 헌신 늘 잊지 않겠습니다”

군종교구 ‘호국영령 위령대재’
“국가적 행사로 승격 발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대재가 거행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주최하고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고현석·육군 중장)가 주관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6월 2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엄수됐다.〈사진〉 특히 올해 위령대재는 고 정동호 장군과 현성 스님의 원력으로 1984년부터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봉행되던 위령재를 통합·확장해 마련한 것으로 호국 정신 계승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국가적 행사로 승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숱한 위험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가 보존되고, 민족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한 건 나라를 지켜온 순국선열들 덕분”이라며 “(호국영령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이같은 역사를 잘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 내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종단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화와 조전을 보내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위령대재가 여법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은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오늘 위령대재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잊지 않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종평위, ‘해미읍성’ 성지화 답사 추진

9월 5일 예정…3차 회의서 결정
“심각성 실제 느끼고 방안 모색”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종평위)가 해미읍성 일대에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가톨릭 성역화 사업 현장 답사를 진행한다. 실제 현장에서 성지화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역사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종평위는 6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해미읍성 일대 특정 종교 성지화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9월 5일 현장 답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사진〉

이날 조계종 사회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해미읍성은 2014년 당시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이 내한했을 때 이곳을 찾아 처형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가톨릭 성지 개발이 이뤄졌다. 관광 안내판, 입간판 등에 가톨릭 ‘박해’의 역사만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 종교편향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사회부는 십자기의 길, 천주교 박해 관련 안내문 등 해미읍성의 공공성을 훼손한 조형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담은 공문을 서산시에 몇 차례 발송했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회신에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것일 뿐 특정 종교 성지화를 위한 조형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종평위 위원스님들도 가톨릭 성지로 고착된 해미읍성의 실제를 보고, 공공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듀이카, 불교동아리 ‘반야듀’ 창립

6월 27일 정각원서 창립법회 봉행



동국대가 최근 14개 단과대 및 일반대학원에 불교동아리를 창립해 전법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듀이카에서도 설립 49년 만에 불교동아리를 창립, 대학생 전법 원력에 힘을 모았다.

듀이카(원장 손재현, 구 동국대 전산원)는 6월 27일 교내 법당 정각원에서 불교동아리 ‘반야듀’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듀이카 불교동아리 ‘반야듀’는 100여 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으며, 박수정 경영학과 학생이 동아리 회장직을 맡았다. 지도법사에는 견명 스님이, 지도교수로는 이성무 경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오늘은 14개 단과대와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창립에 이어 듀이카의 ‘반야듀’가 마지막 16번째 불교동아리가 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반야듀는 최고의 지혜를 뜻하는 반야(般若)와 듀이카를 합친 합성어다. 동국대의 아들딸들이 지혜와 함께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수정 회장은 “반야듀는 불교 문화 체험으로 학업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아리”라며 “앞으로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불교 영화 감상을 통해 불법을 알리고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수습기자

운문사, 천년을 세우다 등에 2000만원

6월 24일, 진우 스님 예방서



운문사가 종단 불사에 정성을 보태며 한국불교 발전을 기원했다.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은 6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에 불사금 1000만원,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사진〉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은 “한때 한 반에 학인스님이 6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5분의 1로 감소했을 정도로 출가자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상주대중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운문사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운문사 살림도 어려울 텐데 매년 잊지 않고 복지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호국미타사, 공군 불교 문화탐방 성료

6월 16일, 양양 휴휴암서



군포교에 진력하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호국미타사가 6월 16일 장병들의 불교문화 학문 소양 증진을 위해 ‘지역 불교 문화탐방-통신보안’ 프로그램을 성료했다.〈사진〉

제13차로 열린 이번 문화탐방은 ‘휴휴(休休)’를 주제로 양양 휴휴암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40여 명의 군장병이 참석해 휴휴암에서 방생을 실천하며 생명 존중의 마음을 되새겼다. 양양 남애3리 해수욕장도 방문해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호국미타사 주지 관문 스님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지역 사찰 문화에 대한 소양 증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문화탐방 후 장병들의 감화된 스트레스가 전투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은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내외빈과 발제자, 논평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삶·사상 면면을 살피다

6월 22일 대행선연구원 제8회 학술대회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삶과 수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수행-자료발굴과 기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비구니 선지식인 수인·수옥·장일 스님과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의 삶과 수행을 조명했다.

수인 스님, 자비 실천한 '상불경보살'

보현정사 주지 경조 스님은 '수인 스님의 수행, 사상 그리고 실천' 제하 논문에서 호거산 운문사 초대 주지 성월당 수인 스님(1899~1997)의 행장과 사상을 손상좌, 지인 등의 구술조사를 통해 조명해냈다.

1899년 9월 3일(음)에 태어난 수인 스님은 9세에 입산해 11세에 운문사에서 혜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사미니계 수지 후 1914년 통도사 옥련암 강원에 입교해 사집·사교·대교 등을 수학했으며, 1923년 통도사에서 혜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조 스님은 수인 스님의 사상을 '무욕'과 '정진행'을 통해 "'상불경보살행'을 평생 해오신 선지식"이라고 정리했다.

스님은 "시봉 상좌 등은 수인 스님에 대해 '중노릇을 잘한 것,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라고 술회·평가했다. 이는 불제자이자 출가수행자로서 자신의 본분과 본심에 최선을 다한 수인 스님의 노력에 대한 상좌들의 평가"라면서 "또한 수인 스님은 출가자로서 세속적인 가치에 근거해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일체 분별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무욕과 정진을 통해 수인 스님이 보인 것은 자비행이었다. 실제 조계종 경상북도종무원에서 작성한 수인 스님의 개인신상조사서의 특징란에 '자비인내'가 기록된 것은 스님의 인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후학인 경조 스님이 수인 스님을 모든 일체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공경심을 갖고 대하는 '상불경보살'로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조 스님은 "상불경 보살행은 '불성론'이란 불교의 핵심 교리를 삶으로 구현한 실천"이라며 "노보살님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언제나 부처님으로 대하는 스님의 모습은 현재까지도 상불경보살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인 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정리하고 분석할 연구자료가 많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는 다른 근현대기 비구니스님 연구에서도 반복될 문제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수옥-경봉 스님, '법거량' 한시 교유

삼선불학승가대학원 교수 원과 스님은 '비구니 수옥과 경봉 선사의 한시 교유'에서 비구니 대강백 화산당 수옥 스님(1902~1966)의 친필 노트인 〈도가한화〉를 근거로 1957년 4월부터 1965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봉 선사와의 한시 교유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비구니 수옥 스님과 당대 선지식 경봉 스님의 한시 교유는 1957년부터 4월부터 1965년 10월까지로, 수옥 스님의 세납은 56~64세. 경봉 스님의 세납은 66~74세였다. 두 스님의 한시 교유는 총 14차례 이뤄졌는데, 1966년 이후 한시 교유가 끊긴 것은 수옥 스님이 지병으로 입적했기 때문이다.

한시 교유의 시작은 수옥 스님이 물꼬를 텄다. 수옥 스님은 1957년 부산 범일동 반야사에서 경봉 스님을 만나 자신의 한시를 보여줬는데, 내용은 내원사를 중창하고 선원을 경영하는 소회가 담겼다. 이 시를 경봉 선사가 차운하면서 교유는 시작됐다. 14차례 이뤄진 한시 교유를 소재별로 살펴보면 △새해 축하 △안거 해제 △내원사 중창 △윤현진 선생 찬탄 △구하 천보 추모 등으로 분류된다.

원과 스님은 "기본적으로 해제 운과 그 차운은 싯구를 통해 법거량, 즉 스승이 제자들의 공부를 점검하거나 제자가 스승에게 참선체험을 보고하는 선문답 성격을 지닌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선가의 해제일, 공개적으로 발표된 해제 운을 차운한다는 의미는 수옥 스님이 선리에 대한 이해, 그에 수반된 참선 수행, 한시로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갖췄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옥 스님과 경봉 스님이 주고받은 한시는 새해를 축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한시들도 4차례가 있다. 그것들 역시 법거량 차원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선객들을 지도하는 대선사와 수옥 자신의 안목을 공유할 만큼 선사상에 대한 이해와 참선 수행이 선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일 비구니 없으면 동화사도 없다"

팔공총림 동화사 부도림에는 비구니 선지식 도림당 장일 스님(1916~1997)의 부도가 있다. 장일 스님은 팔공총림 산내 암자 내원암의 스님이었지만 동화사 부도림에 부도를 세우는 것에는 비구스님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내원암에 세워도 될 부도를 왜 본사 부도림에 세우냐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총무원장을 역임한 의현 스님(현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이 동화사 비구스님들에게 호통을 쳤다고 전해진다. 당시 의현 스님은 "불교정화운동 때 장일이라는 비구니가 없었다면 동화사도 없었을 것이다. 비구들이 동화사를 차지하고 따뜻한 방에서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있던 것은 장일 덕인 줄 알라"고 일갈했다.

의현 스님이 비구스님들에게 호통을 치면서까지 상찬한 비구니 '장일 스님'의 면면을 조명한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동국대 선학과 박사인 여현 스님은 '도림당 장일의 수행과 호법활동'을 통해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섰던 선지식 장일 스님의 삶과 사상을 살폈다.

장일 스님은 1916년 3월 15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이었기에 조부와 아버지를 이른 나이에 잃었다. 배움이 짧았던 모친은 장일 스님에게 많은 책을 보게 했는데, 스님은 서산·사명 대사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고 출가의 마음을 냈다. 출가의 이유는 도를 깨우쳐 얻은 힘으로 나라를 독립시키고, 호국선열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 지월 스님(사진 왼쪽), 김태수 교수(사진 오른쪽)와 혜수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지식 수인·수옥·장일 스님 조명
대행 선사 사회 참여 연구 발표
묘공학술상·장학증서 수여식 진행



묘공학술장학생 박소은(독일 함부르크대 석사과정, 사진 왼쪽) , 박훈(동국대 박사과정, 사진 오른쪽) 씨와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친은 출가를 바라지 않았고,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고무신을 연못에 벗어두고 출가했다. 그길로 함경도 안변 석왕사, 함흥 기주사 등을 다녔지만 출가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다가 1937년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서 오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39년 동화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41년 해인사에서 경하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장일 스님은 '불설(佛說)', 즉 경전에 근거해 수행 정진했다. 후학들에게도 '재물과 이성문제가 불러오는 화는 독사에 물린 것보다 심하다(財色之禍 甚於毒蛇)'는 〈계초심학인문〉의 구절을 항상 상기시켰다.

여현 스님은 "스스로 일군 동화사 내원암을 이내 내려놓고 운수납자로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수선안거를 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불교정화운동에서도 장일 스님은 일익을 담당했다. 정화운동 당시 장일 스님은 사제 성원·상좌 원명 스님과 경남 지역 비구니스님들을 규합해 서울에서 공양주와 채공을 살게 하며 힘을 보탰다.

여현 스님은 "장일 스님은 여러 활동을 통해 비구니승가의 위상을 높였고, 사회 일원으로서 비구니스님의 역할을 명확히 보였다"며 "장일 스님은 한국불교 비구니 교단을 최성기에 올려놓은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대행선은 진실이자 방편, 방편이자 진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스님의 진실과 방편의 중도'를 발표하고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대행선' 선풍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펼쳐냈는지를 진실과 방편의 시각으로 살폈다.

일반적으로 방편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 방편은 '중생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게 해석하면 "중생을 구제해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방편이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 불교가 전해졌을 때 낯선 불교의 개념을 익숙한 그들의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던 '격의'도 방편의 일종이다. 최 연구원은 "중국불교의 방편은 처음 불교가 전해지던 시기의 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격의가 돼 중국인의 불교 이해에 예외없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대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대행 선사가 보인 방편은 무엇일까.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방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일상 언어로 이뤄지는 법문"이라며 "선사의 법문에는 한문 원전을 인용하는 일도 거의 없고 어려운 불교 개념어도 거의 쓰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의 용어로 그냥 알기 쉽게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 선사가 '참선이 바로 생활'이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최 연구원은 "'일상이 바로 선'이라는 관점은 대행 선사만의 특징은 아니다. 현실을 중시하는 중국불교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선종의 기치가 '일상의 모든 것이 선'이었다"면서 "독자적으로 보인 대행선은 역설적으로 선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행 선사 깨우침, 에코다르마 맞닿아"

박진영 아메리칸대학 교수는 '한국불교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습: 대행 스님의 경우'를 발표하고 대행 선사의 오도(悟道)가 사회참여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살폈다.

먼저, 박 교수는 대행 선사의 오도 과정을 조명했다. 1927년 태어난 대행 선사는 구한말 대한제국 무관이었던 아버지를 둔 덕에 처음엔 크게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7살에 집이 어려워지면서 흑석동 근처 산간에 허름한 집을 짓고 삶을 연명했다.

이후 대행 선사는 산과 들을 다니며 존재의 근본을 배워나갔다. 박 교수는 "대행 선사에게는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물질적 풍요도, 가족을 통한 보호도 기능하지 않았다. 이처럼 나체로 맞아야만 했던 존재자의 고독이기에, 그 고독을 통해 얻은 깨침의 심연은 깊을 수밖에 없었다"며 "깨침의 깊이가 깊었기에, 존재의 고독과 아픔은 단지 대행 선사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특히 존재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행 선사는 "나는 지금도 가엾은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못난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린다.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에게도 마음이 끌린다"고 설한 바 있다.

이런 대행 선사의 산중 깨우침을 박 교수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신학자 이정용(1935~1996) 교수의 '주변인' 이론과 연계해 해석했다. "종교는 중심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있어서는 안 되며 중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정용 교수의 주장과 존재의 주변인에게 느끼는 대행 선사의 마음은 사실상 종교의 존재 이유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대행 선사의 산중 깨달음이 서구불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코다르마'의 현실적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행 선사는 자연에서 외부세계와는 달리 존재의 평등성을 보았다"면서 "업의 사회성에 눈을 돌리는 것은 불교 수행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실상 대행 선사의 삶은 개인의 깨우침에서부터 사회참여로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사회참여는 산간에서 느꼈던 다른 존재자에 대한 아픔, 공감과 공유성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면서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또한 외부에서 일어난 사회 현실적 문제에 대한 참여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의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6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올해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는 중앙승가대 강사 지월 스님과 김태수 대진대 연구교수가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700만원의 연구비가 수여됐다. 묘공학술장학생으로는 박소은(독일 함부르크대 석사과정)과 박훈(동국대 박사과정) 씨가 선정돼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비구니 연구 앞장 대행선硏 감사"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입재식에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근·현대 비구니 선사들의 삶과 수행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중요했던 자료나 수행 기록은 보관이 쉽지 않아 버려지거나 산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고 비구니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앞장서는 대행선연구원의 노고가 고맙고 또한 든든하다"고 상찬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네 분의 선사 모두 일제 강점기를 보내며 수행정진하고 대중을 화합으로 이끄신 분들이다. 이 자리는 선사들의 삶을 감동으로 전하는 한마음 되어지는 자리"라며 "오늘의 공덕으로 비구니선사들의 삶과 수행, 사상이 계승될 것이며, 후대에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 이어 근·현대 비구니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기록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자료를 정리, 수집해 연구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넘어가면 삶의 족적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에 '자료발굴과 기록'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대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27돌 부산교직원불자聯 "佛法서 참된 교사의 길 찾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창립 27주년 기념법회 봉행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교권 붕괴,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교사들의 하루하루가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만큼 힘들어졌다. 이런 때에 부산 지역 초등, 중등, 고등 교사 불자들의 모임인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손은주)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면의 힘을 충전하고 참된 교사의 길을 찾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6월 22일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마음강당에서 열린 창립 27주년 기념 대법회에는 부산 지역 교사들은 물론 서울, 제주 등에서도 27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여했다. 손은주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 김경희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박종실 사무총장, 박현희, 이학우 전 대 회장, 박상규 사립학교장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회 회장 및 각 학교 교장, 교감,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의 음성공양과 혜벽 스님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상법 강의가 있었다. 혜벽 스님은 '바다에서 나온 물방울'이란 주제로 바다와 물방울이 둘이 아닌 이치를 설명했다. 중, 고등학교에 마음공부 강의를 진행중인 스님은 우리의 참된 마음과 작용을 바다와 물방울로 비유하니 타 종교 학생도 거부감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며 학생들의 후기를 공유했다. 혜벽 스님은 "이 명상을 통해 근본자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교사도 학생도 부딪히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널리 활용하길 희망 했다.

이어진 본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회장인사 △감사패증정 △축사 △축하공연 △영상법문 및 법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손은주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은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지난 27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고 교직원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젊은 교사와 교직원들에게도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가 6월 22일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마음강당에서 창립 27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150여 명 참석해
전 회장단 감사패 전달
지원장 혜도 스님 법문
혜벽 스님 명상 실습도

김경희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은 "저희 대법회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개최하도록 법석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혜도 지원장스님께 감사드리며 식전행사로 합창단의 선법가를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말끔히 된 것 같다"며 "함께 동참한 모든 도반님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자리가 본래 크고 맑고 충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처님 자비심과 지혜의 공덕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으로 어떻게 전환할까 하는 게 평소 저의 고민이었는데 오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그 방법을 배운 것 같다. 오늘 법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창립 27주년을 축하했다.

'한마음의 위력'이라는 대행 선사의 생전 영상법문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혜도 스님은 "학생들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바뀌어야하며 학생 한명 한명이 곧 내 몸속 세포 하나 하나라고 여기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모든 것을 불성자리인 한마음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래야 내 몸의 세포의 의식들이 밝아지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밝음으로 인해 학생들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기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과의 갈등, 여러 문제들로 지쳐 있었는데 오늘 법회에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걸 들이고 내며 해결해 가는 근본자리가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따라 실천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지난 10년간 회장단을 역임한 김경희 전 회장과 김화선 전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단체를 위해 헌신한 공로에 감사를 전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 스님)가 6월 21일 유엔 기념공원 내 위령탑 앞에서 '2024 유엔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사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불교, 원불교, 유교 등 부산지역 6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매년 호국의 달을 맞아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합동위령제는 △헌화 및 참배 △개회선언 △국민의례 △UN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추도사 △종단별 추도식 △추모의 노래 △공지사항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정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위령제를 계기로 꽃다운 나이에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끝내 산화한 UN군 전몰장병들이 각자의 믿음과 원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발전 통해 캠퍼스 포교 진흥"

대불련 총동문회, 6월 22~23일 제20회 전국동문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최승태)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홍법사에서 '제20회 전국동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동문대회는 '대불련61년 진리의 바다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불련총동문회 부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원 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해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 및 대불련 지부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홍법사에서 '제20회 전국동문대회'를 개최했다.

자랑스런 대불련인상은 고 박건주 동문, 박광민 동문, 유선재 동문이 수상했으며, 공로상은 이임범 씨와 이숙희 씨가 받았다.

최승태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지난 60여년 동안 대불련은 캠퍼스 포교 현장을 함께해 왔다"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대학생 불교 현장이 반갑고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구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며 "한마음이 되고 환희심으로 원만 회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송정 대운사, 현대인 얼굴 담긴 나한 점안

6월 23일, 경내 2층 법당 220여 도자기 나한 불사

부산 송정 대운사(주지 주석 스님)가 6월 23일 경내 2층 법당에서 '대운사 나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대운사에 봉안 된 나한은 현대인의 얼굴을 모티브로 모습을 조형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전하는 일상 속 깨달음을 메시지로 담아 새로움을 더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증명으로 진행된 이번 나한 점안식은 국가무형문화재 127호 아랫녘 수륙재보존회 이사장 석봉 스님의 집전으로 거행됐다.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나한을 모신 공덕은 그 어떤 공덕보다 수승하다"며 "문화를 통해 불교를 현대적으로 발전, 포교하는 주지스님의 원력에 함께한 모든 신도님들이 발전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송정 대운사가 6월 23일 경내 2층 법당에서 '대운사 나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주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불사가 원만 성취하기 까지 동참하고 격려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점안할 수 있었던 거 같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수행 정진할 수 있는 대운사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 부산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BTN불교TV 부산합창단(단장 박다언)이 6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정기연주회 '心쉼한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마음의 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사운드 테라피를 선사하는 '이너피스 사운드'의 공연으로 시작해 'BTN부산합창단'과 '별빛 중창단', '음악대륙 가이아'가 무대를 장식했다.

합창 공연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김수현 BTN불교TV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8월 10일 토요일(음7.7)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법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원장)
존증아사리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존증아사리 원순 율사 (재단법인 동명불원 원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존증아사리 담화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무진선원 주지)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영축환경위원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약속한 끝장 토론회 개최 요구
“사업 재개, 상식에도 안 맞다”



영축환경위원회와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정원 스님)와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안승찬·배성만)가 6월 20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중단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원 스님과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기획국장 정대 스님, 포교국장 신경 스님 등 통도사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안승찬·배성만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이상범 집행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영축환경위와 범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울주군의 일방적인 케이블카사업 추진과 여론을 호도하는 비신사적인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신불산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영축환경위와 범시민대책위는 신불산케이블카 사업 문제 근거로 △21년 3월 세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공사비는 533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644억 원으로 111억 원이나 증액한 공사비에 대해 울주군이 어떤 검증을 했는지 들어본 바가 없다는 점 △신불산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조사에 대책위가 입회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조사 일정 등을 알려주지 않고 진행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게다가 세진중공업과 범시민대책위가 ‘끝장토론’에 합의했으나 제1차 토론회 이후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해 2차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현재까지도 다시 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도 “2018년도에 상급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생태 동식물 보호를 이유로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며 “그러한 문제들이 여전함에도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화엄사, 대학생 불교동아리 연합법회

순천대 · 호남대 · 광주여자대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발원”



대학생 포교를 위한 화엄사의 힘찬 걸음이 주목받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6월 22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에서 ‘지리산 대화엄사 대학생 불교동아리 연합법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사진〉 이날 연합법회에는 화엄사에서 지원하는 순천대, 호남대, 광주여자대 불교동아리가 참여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3개 대학에 전법기금 총 3000만원을 전달했고, 화엄사도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대학생 포교기금으로 지원했다.

덕문 스님은 “오늘 법회는 대학생 전법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대작불사임을 일깨워주신 자승 큰스님의 원력이 더해졌다”며 “대학생 전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호산 스님은 “지리산 대화엄사와 인연을 맺은 순천대, 호남대, 광주여자대 불교동아리가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엄사는 순천대에 지도법사 선타 스님·지도교수 이종수 교수·동아리회장 최훈표 학생을, 호남대에 지도법사 연성 스님·지도교수 전현진 교수·동아리회장 임준 학생을, 광주여자대에 지도법사 진현 스님·지도교수 박선일 교수·동아리회장 박성희 학생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광주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연성 스님, 흥륜사 주지 선타 스님을 비롯해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박선일 광주여대 지도교수, 전현진 호남대학교 지도교수, 이종수 순천대학교 지도교수, 대학생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드라망 선덕사 자비의 쌀 나눔

인드라망 광주도량 선덕사(주지 담준 스님)는 6월 24일 자비신행회에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 280kg은 광주 동구지역 7개 그룹홈의 아이들과 시각장애인협회에 전달됐다.

담준 스님은 “〈법구경〉에 ‘똥처럼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나누면 향기가 된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나눔을 통해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

6월 20~21일, 화순군청서
“세계적 유산 가치 규명”



천불천탑으로 알려진 화순 운주사(주지 무안 스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월 20~21일까지 양일간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운주사 주지 무안 스님은 “운주사는 공간적 조성과 형태의 다양성, 조형성은 불교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세계불교 유산적 가치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적 유산 가치가 규명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기찬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세계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규명’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OUV)’, 박경식(단국대 명예교수) △‘타흐트-이-바이 간다라 세계불교유산의 유산적 가치’, 모하마드 튜페일(파키스타, 홍콩이공대 조교수)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 이숙희(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감정위원)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첫째날 운주사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MZ세대 전법에 총력 결의

35사단 수계법회 정례화도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MZ세대를 겨냥한 전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선운사는 6월 24일 고창불교회관에서 2024년 2차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예산 일부를 포교사업비로 전용할 것을 결의했다.〈사진〉 포교사업비로 전용된 예산은 35사단 군 장병을 위한 수계법회와 위문공연, 고창불교회관 어린이 청소년법회 지원, 군산대학교 불교동아리 지원, 사찰 포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사용된다.

경우 스님은 “이제라도 공심으로 일하고 신심으로 포교 전법하자” 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대학생 합동수계법회 봉행

단국대, 공주대, 공주교대 참여



천안 단국대, 공주대, 공주교대 불교학생회는 6월 20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 관음전에서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와 함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계사로 나선 원경 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고 해탈 열반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설했다.

한편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단국대 불교동아리 ‘붓다’에 1000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여래종 ‘약사여래대불 백만원력’ 결집

6월 23일 ‘대작불사 기원법회’



한국불교여래종이 약사여래청동대불 대작불사를 위한 백만원력 법회를 열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6월 23일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약사여래청동대불 백만원력 대작불사 성공기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세계평화 남북통일 지구촌한가족 구병 구호 구도의 서원을 이루고 여래종이 세계화 전국화로 더 나은 종단 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작불사를 원만 성취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창립 16주년 행사

혜청 스님 등 200명 참석



호남지역 불교 NGO에서 가장 모범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 스님)가 6월 22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2층에서 창립 16주년을 맞아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해청 스님은 “역대 상임대표 스님들과 실무자, 후원자들의 노력 속에 창립 16주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대응 활동과 생명 평화운동 그리고 기후 위기시대, 단순 소박한 삶으로의 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군포교후원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1300여 훈련병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불자로 거듭났다. 화엄군포교후원회는 6월 22일 논산훈련소 법당 호국연무사에서 1300여 명 불자 훈련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계사로 법석에 오른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아침저녁 5분씩 나무아미타불을 명호하면 마음이 맑아질 것”이라며 “오늘 수계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고 평안하게 군 복무를 마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화엄군포교후원회는 수계법회 후원금 2000만원을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에게 전달했다. 화엄군포교후원회는 2000년 대전과 충청지역 조계종 스님들이 뜻을 모아 창립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갑룡장학회,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원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가 6월 26일 진안군청(군수 전춘성) 2층 상황실에서 진안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 전주 천지사 봉사단,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동전 저금통 100개를 모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전달했다.〈사진〉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2021년 진안사랑장학회(이사장 전춘성)와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가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만원, 총 5000만원 장학금을 전달하기로한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지역 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사, 화엄사 · 천은사로 화엄성중 가피 순례

한국불교 대표적 신앙 대상인 화엄성중의 가피를 찾는 성지순례가 마련됐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6월 21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를 순례하는 ‘화엄성중 가피순례’를 진행했다.〈사진〉

화엄성중 가피순례는 신중탱화의 104위 신중에 맞게 104개의 사찰을 탐방하고 화엄성중 기도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순례객을 환영한 덕문 스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잘 쓰셔야 한다. 내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명상이다. 화엄성중 가피처럼 여러 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이 선명상이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하보디교육원, 승려연수교육 회향

(재)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정토마을 자재병원서 진행한 영적 돌봄 임상실습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을 원만 회향됐다.〈사진〉

‘영적돌봄 임상실습’에서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스님들이 영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배우고 병원 현장에서 직접 실습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임상실습에서는 18명의 스님이 수료했다.

이번 임상실습에 참가한 한 스님은 “생사의 경계가 늘 먼 얘기, 남의 얘기로 들렸는데 막상 자신에게 닥쳤을 때나, 가까운 분들의 경우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43돌 광주 보은사, 이주민 나눔 잔치

조계종 송광사 광주광산포교당 보은사(주지 도제 스님)가 6월 23일 창건 43주년을 기념해 ‘따로, 또 우리 함께 자타불이 어울림 한마당’을 주제로 지역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잔치를 열었다.〈사진〉

이 자리에는 동남지역 불교국가들의 이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각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불교계 인기 작가인 정찬주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있었다.

도제 스님은 “보은사 창건 4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에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활동이 불교적 사회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이웃 사랑 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달라이라마, 미국 하원 대표단 회담 가져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외 6명 다람살라 방문

박영빈 객원기자

정당을 초월한 미국 국회 하원 대표단이 달라이라마를 만나기 위해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했다. 이번 회담은 달라이라마가 무릎 치료를 위해 방미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6월 19일, 미국의 '포브스' '미국의 소리' 등 주요 언론들은 달라이라마와 하원의원들의 만남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과 미 하원 외무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의원이 이끄는 7인의 미국하원 대표단은 6월 19일 오전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달라이라마의 관저에서 달라이라마와 회담을 가지고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특히 전 하원의장과 현 외무위원장과 같은 하원에서 영향력이 강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집중됐다.

마이클 맥콜 의원은 달라이라마에게 회담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힘께 "달라이라마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상대가 누구이던지 마음의 평화, 타인에 대한 자비와 용서를 유지해 오셨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티베트-중국 분쟁 해결법〉 전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비판도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그 중심에는 자비가 있으며 우리는 같은 권리를 가진 한 지구의 한 인류라는 형제다. 우리는 종교를 떠나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위해 함께 해야한다"며 평화와 자비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하원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12일 하원에서 통과된 〈티베트-중국 분쟁 해결법〉의 사본을 달라이라마에게 전달했다. 이 해결법은 티베트인에 대한 모든 억압과 강압을 거부하고 티베트인들의 자결권을 확인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파적으로 압도적인 지지하에 통과됐으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하원 대표단과 회담을 가진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

회담 후 티베트 망명정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티베트 망명정부 수장, 펜파체링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에 감사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를 비롯한 모든 티베트인들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망명정부 청사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달라이라마는 분명히 오래 살 것이며, 이분이 세계에 퍼트린 메시지는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펠로시 전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위세는 사라질 것이고, 그 누구도 시주석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달라이라마가 "순수한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라는 탈을 쓰고 반중 분리주의 활동을 펼친 정치적 망명자"라며 이번 하원 대표단의 방문을 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 측이 달라이 도당(徒黨)의 반중국, 분리주의적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길 바란다. 티베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국이 앞서 중국과 맺은 약속을 존중하며, 달라이 도당과의 접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원로스님, 군부 총격에 입적

군부, 반군으로 오인사격으로 인한 것 해명



미얀마의 존경받던 원로 스님이 군부 군인들의 총격으로 원적했다. 군부 군인들은 스님이 탄 차량은 반군으로 오인하여 사격한데서 생겨난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여론은 군부의 계획적인 범죄로 의심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6월 20일 '미얀마 나우' 'UCA 뉴스'등이 대서특필했다.

지난 6월 19일, 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경 만달레이에서 남서쪽으로 약 72km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군인들 한 차량에 총격을 가했다.

현장에서 원적한 아신 무닌다비왐사 스님〈사진〉은 바고 지역의 중요한 사찰인 윈 네인미타욘 사원의 방장이자 미얀마의 출가자들을 감독하는 국가 승가위원회의 전 위원으로 미얀마에서 존경받는 원로스님이었다.

사고 직후 군부는 "반군과의 전투 중에 스님들이 탑승한 차량이 말려들었고 안타깝게 스님 한분이 불의의 변을 당하셨다. 당시 차량이 군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반군으로 오해를 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다음날 생존자인 구니카비왐사 스님은 군부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스님은 "군부의 말처럼 경고사격이나 정차지시는 전혀 없었다. 보안군들은 무차별 가격을 개시했다"고 폭로했다. 구니카비왐사 스님은 "현장을 촬영하려하자 군인들은 내 휴대폰을 압수했고, 군사캠프로 이송돼 5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스님의 폭로영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군부 관계자는 윈 네인미타욘 사원을 방문해 군인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하여 무닌다비왐사 스님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지 여론은 좋지 않다. 소식통은 "스님은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미얀마 불교계 최고위 원로스님 중 한 분 이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군부가 계획적으로 스님을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불치사리 봉안 60주년 기념법회

7개국 불교 대표 · 중국 3대 종파 대표들 세계 평화 발원

전쟁에도 되찾은 기적 떠올리며
부처님 가피로 세계번영 기원

중국 베이징 영광사(靈光寺)에서 부처님 치아사리 봉안 60주년을 기념 법회를 봉행해 화제다.

지난 6월 21일 중국 일간 영어 신문 '중국일보'는 불치사리(佛齒舍利) 봉안 60주년 기념 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상좌부 불교 승가 대표를 비롯한 외국 외교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9시쯤 한국,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7개국 불교계 대표와 중국 3대 종파(천태종, 화엄종, 선종) 대표가 모여 불치사리 봉안 탑 앞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세계평화와 번영, 전 세계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기념 법회를 주최한 중국불교협회 대표 옌쥐 스님은 "불치사리는 불교 최고 보물이자 중국과 국제 불교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불치사리 봉안 탑을 재건한 이후 지난 60년간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찾아와 예를 표한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불자의 예법은 각기 다르나 모두 경건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매우 조화로우며 공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불교계는 전 세계 불교계와 협력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불교의 정신인 자비와 평화, 지혜, 중도, 포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타국과의 우호 증진, 세계 평화, 모든 존재의 안녕을 발원하며 각국의 문화 교류와 상호협력 등을 통해 인류 공동 미래를 위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백서를 인용해 중국 불교계의 참여를 약속했다.



7개국 불교 대표와 중국 3대 종파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불치사리 봉안 6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진출처=글로벌 타임즈

같은 날, 불치사리 사진전, 국제 불교 우호 교류 및 심포지엄 등의 행사도 함께 개최됐다. 베이징 영광사의 불치사리는 5세기 중반 신장의 한 승려에 의해 이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0년 의화단 운동 당시 열강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사찰과 불치사리 봉안 탑이 파괴됐다. 다행히 이듬해 파괴된 사찰 유적을 정리하던 승안 스님에 의해 불치사리가 발견되어 보관되었으며 1955년 베이징 광지사에 이운되어 모셔졌다. 1957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불치사리 봉안 탑 재건이 시작되었으며 1964년 6월 26일 완공되어 불치사리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교과서 불교 왜곡·수정 청원

구자라트주 교과서 문제 제기
불교계 항의에 당국 수정 약속

6월 21일 인도 신문 '마디야맘'은 구자라트주의 불교계가 주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기재된 불교 관련 내용에 대하여 오류와 왜곡을 수정 및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자라트 공익위원회 위원들과 불자들은 구자라트 주립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현행 사회 교과서 내에 기재된 불교 관련 내용 중 12건의 오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편찬 위원회는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불교 왜곡 서술 수정을 약속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사회 교과서는 구자라트 주에서 발행한 교과서로 인도에서 기원한 8개의 종교를 소개하는 '인도 문화와 공동체' 장이다.

구자라트 불교 아카데미(GBA) 라메시 뱅커 사무총장은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중 일부는 티베트 불교의 관습이다. 예를 들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스승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의 스승들은 비구와 비구니로 불리며, 불교의 환생과 윤회관 역시 힌두교와 다르다. 경전 역시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된 경전도 있기에 유일한 성전이라는 개념은 불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교도에 관한 기술도 "힌두교와 달리 불교는 다양한 계급에서 귀의한 불자가 많다. 논란 여지가 있는 오류들에 대해 조속한 수정과 보완을 바란다"며 교과서 내 오기재 된 서술을 정확한 사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구자라트 교과서 편찬위원회의 고사이 위원은 "교과서 공동저자들과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할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석전 스님 인문 정신을 살피다

동국대 한국문학硏 학술대회
석전 스님 발굴자료 등 소개
스님 전서 편찬 방향성 제시
2028년까지 전서 발간 계획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6월 27일 열린 '석전 박한영과 전서 편찬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의 인문 정신을 살피고 발간 추진 중인 스님의 전서 편찬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한국문학연소(소장 김상일)는 6월 27일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석전 박한영과 전서 편찬'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사업은 윤재웅 총장이 총장 선거 당시 건학이념 구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동국대 개교를 이끌었던 선지식 석전 스님을 선양함으로써 동국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에서 석전 전서 간행팀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업 초기 단계에 발굴한 신자료의 가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할 전서 편찬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 교수는 '석전 박한영의 인문정신' 기조 발제에서 석전 스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석전 스님에 대한 연구 방향을 인문 정신과 한국 근대정신사, 동아시아 지성사의 관점에서 확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전 박한영의 불교사 이해와 한국불교 인식〈불교사람요〉와 〈각종강요〉'를 발표한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1918년 중앙학림에서 강의한 내용인 〈각종강요(各宗綱要)〉와 불교의 역사를 기술한 〈불교사람요(佛教史攬要)〉를 중심으로 석전 스님의 불교사 이해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김용태 교수는 서울의 불교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의 불교사 강의가 이뤄졌고, 이를 매개로 한국불교 관련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폈다.

김성연 동국대 K학술혁신단 교수는 '신자료를 통해 본 석전의 임제종 운동'을 통해 석전 스님이 추진했던 임제종 운동을 다시 톺아봤다. 임제종 운동은 1910년 원종(圓宗)의 종정 이회광이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부속시키려 했던 매종(賣宗) 행위에 대한 보종(保宗) 운동으로서 설립된 임제종(臨濟宗)의 활동을 이르는 명칭이다. 석전 스님은 임제종 운동을 이끈 주체 중 한 명이다. 논문에서는 몇 해 전 송광사에서 소개된 필사본인 〈간독(簡牘)〉을 통해 임제종의 핵심 인물이었던 석전 스님의 시대인식을 조명했다.

'석전 박한영의 심성론과 학리 불교'를 발표한 김영진 동국대 불교문화학부 교수는 석전 스님이 1910~1920년대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동명〉 등 잡지에 게재한 불교 논설을 분석하고 스님의 '불교의 전통과 근대의 중첩'을 살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선학에 대한 석전의 이해와 접근 방식'을 통해 석전 스님이 1913년부터 1932년에 걸쳐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선원〉 등에 기고한 23개의 글을 중심으로 선종과 관련한 자료를 발췌해 선종에 대한 석전 스님의 이해와 대중에게 전법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했다. 김호귀 교수는 이들 자료를 통해 석전 스님이 당시의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제시했던 선학에 대한 이해, 석전의 견해가 반영된 평설 등에 대해 고찰했다.

'석전 전서의 구도와 편찬의 방향'을 발표한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집성과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석전 전서 간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추진하는 석전 박한영 전사 편찬사업은 저술편과 어록보유편으로 나눠 1, 2차분으로 전서가 출간된다.

1차분으로 발행되는 전서는 〈석전시초〉 등 단독 저술과 잡지에 연재한 연재물 등이 주를 이루며, 총 10책 발간이 계획돼 있다. 특히, 1차분 전서에는 최근 송광사에서 발굴된 〈각종강요〉나 〈종교학〉 강의노트 등 신발굴 자료들이 포함돼 의미를 더한다. 1차분 전서는 2026년 6월 동국대 개교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봉정될 예정이다.

2차분 전서는 잡지 소재 200여 편의 글, 새로 발굴한 비문, 현판 등을 탈초·주해·윤문해 7책으로 출판하고, 자료소개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는 자료를 3권의 자료집으로 2028년까지 펴낼 계획이다.

팔정도 '正見'은 왜 중요할까

진흥원, 월간 〈불교문화〉 7월호 발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불교계 대표 대중 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7월호(통권 제287호)를 발간했다.

7월호 특집은 '정견(正見), 왜 중요한가'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견이란 무엇이며 팔정도의 시작점에 정견을 둔 까닭,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정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일묵 스님은 '정견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견이란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지혜로, 행복을 바라보는 올바른 견해라고 설명했으며,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은 '팔정도의 시작점에 정견을 둔 까닭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견은 팔정도의 시작점이자 나침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필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견이 중요한 이유'에서 "사회가 욕망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정견은 극단으로 치닫는 마음을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 주고 올바른 견해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구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연기에서 창발까지'에서 정견이란 모두가 일치해 합송할 수 있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전현수 전현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정견은 우리의 인격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를 통해 "보는 방식이 바뀌면 감정, 가치관, 행동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 인격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며, 정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하반기 '우리 함께해요' 캠페인은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과 타인을 알아가는 노력을 통해 소통의 공통분모를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공부하는 불교, 불교교양대학-봉국사불교대학' '불교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이어져오고 있나, 한국불교' '10분으로 배우는 불교, 무아(無我)', '법상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공부, 고통이 경험되도록, 아픔이 표현되도록'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신중일 기자

성파시조문학상 시상…박영숙 작가 대상 수상

6월 22일 통도사 서운암서

제41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이 6월 22일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개최됐다.

성파시조문학상 대상은 박명숙 씨의 '적벽'이 수상했다. 박명숙 작가는 서울 출신으로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이름을 올린 중진 작가다. 199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이후 작품 활동을 통해 중앙시조대상,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김상옥시조문학상, 노산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성파시조문학상에는 '도서관에서 추사를 만나다'를 쓴 조한일(제주, 2011년 〈시조시학〉 등단), '장경각 암각화'를 쓴 김정(부산, 2004년 〈현대시조〉 등단) 2인이 수상했다.


제41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이 6월 22일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개최됐다.

성파시조문학작가상에는 '가구박물관에서'를 쓴 조우리(광주, 200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잔도, 소금꽃 피다'의 윤현숙(부산, 2002년 〈부산시조〉 등단) 2인이 선정됐다.

한국문인협회는 시상에 앞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문인협회는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 전통 시조문학 발전을 위해 성파시조문학상을 제정, 운영하고 전국시조 백일장을 지원하는 등 시조문학상 발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성파 대종사는 한국문학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기에 모든 회원의 정성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시조문학인들 성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성파시조문학상이 41회를 맞게 된 것"이라며 "성파시조문학상이 시조시인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시조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어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축전·미디어아트 공모

오는 7월 8~26일 공모 진행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7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025년 '세계유산축전'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참여할 사업을 공모한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 소재한 지자체들이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미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들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 전시, 학술발표회·토론회 등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관할하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표현한 미디어아트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실경과 야외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아트 조성이 가능한 세계유산 또는 국가유산이다. 공모는 관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8월 중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된다. 3년 연속 지원 받은 지자체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해 공모 지원이 제한된다.

올해 세계유산축전에는 순천 갯벌을 보유한 전남 순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야 고분군을 보유한 경북 고령,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충남 공주·부여와 전북 익산이 전시, 공연,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6~7/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초기불전002)*개정판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3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9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5	재미있는 우리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영한	전원문화사	10	선심초심(어떻게 선수행을 할것인가)	스즈키 순류/정창영	김영사

책세상

행복하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라



불교경제학
클레어 브라운 지음
박찬국 번역/ 1만80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적인 경제학은 삶의 질이 1인당 GDP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무한하고 무분별한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경제 성장은 환경위기와 빈부격차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부를 획득하고 소비하는 데 몰두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불교경제학자 클레어 브라운 버클리주립대학 명예교수의 〈불교경제학〉은 자유시장경제학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환경위기와 국가 간 개인 간 빈부격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면서 불교경제학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불교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슈마허(E. F. Schumacher)가 1973년에 출간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인간 중심의 경제학(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슈마허는 장시간 노동과 자원의 고갈 등 소득 증대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예측했다. 그는 물질적 재화의 증대보다도 개인의 성품 발달과 인간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주창했다. 슈마허의 관점에서 불교경제학의 목표는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소유=행복' 자유시장경제학 비판
빈부격차, 기후위기 해법들 모색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무엇으로 행복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자유시장경제학과 불교경제학 사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다. 즉 두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불교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 관대하고 이타적인 면도 있다. 붓다는 모든 사람이 한없는 욕망과 불만족 같은 정신 상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불교경제학의 관점에서 자유시장경제학을 비판하면서 환경위기와 빈부격차의 해법을 모색한다. 저자는 경제정책 목표를 GDP의 증대에서 찾지 않고 삶의 질 증대, 환경보호, 그리고 빈부격차의 해소에서 찾는다. 또한 정부가 이 세 가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언론이 그것들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기업과 개개인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선불교 새로운 대안 제시



유마경선해
구마라지바 한역
학담 스님 해석
푼다리카 펴냄/ 3만 5000원

〈아함경〉 평석 1만 2000페이지와 〈조론〉 해석 1200페이지 등 대작을 저술한 학담 스님이 〈유마경선해〉를 발간했다.

〈유마경〉의 산스크리트 원이름은 '비말라키르티 니르데샤 수트라'로서 '비말라키르티 거사가 설한 경'이라는 뜻이다. 비말라키르티는 동아시아에서 유마거사로 널리 알려진 이로, 세간의 복덕과 출세간의 지혜를 모두 갖춘 큰 보디사트바 장자(長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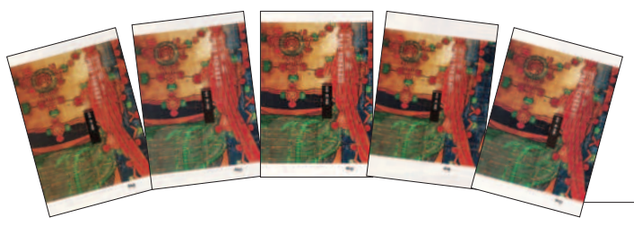
〈유마경〉은 인도에서 붓다 니르바나 이후, 출가주의에 갇힌 성문교단의 틀을 깨고, 붇다 상가정신의 보편주의를 새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지향했던 대승의 보디사트바야나 상가 실천운동 시기를 반영한다. 이 경전이 밝히고 있는 실천정신이 부파불교시대 왜곡된 연기론의 보편적 해탈과 상가정신의 새로운 회복운동의 모습이다.

학담 스님은 이번 해석서에서 대승선(大乘禪)을 이 시대의 불교, 선불교의 새로운 대안, 억압된 문명이 강요하는 환상의 극복, 분단된 민족사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스님에 따르면 대승선은 연기론적 선정의 다른 이름이다. 대승선은 '선 없는 교'와 '교 없는 선'을 동시에 넘어서며 휴식 없는 노동과 노동 없는 휴식을 동시에 지양한다. 대승선은 생각(念)과 생각 없음(無念)의 하나 됨을 지향하며 모든 분단과 단절, 갈등과 충돌 속에 둘 아님(不二)과 화쟁의 길을 제시한다. "불교의 위기는 제도개혁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고 말한 학담 스님은 "불교의 위기는 세계관의 위기며 실천론의 위기"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유마경〉이 곧 둘이 아닌 화쟁의 길이며, 선과 역사, 자아의 해탈과 정토가 둘이 아닌 대승선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학담 스님은 1970년 도문 스님을 은사로 분황사에서 출가했다. 〈육조법보단경〉 등 30여 권에 이르는 불전해석서를, 〈학담평석 아함경〉 12책 20권의 방대한 해석서를 발간했다. 2016년 사단법인 문화유산가꾸기 푼다리카 모임을 설립, 우리사회에 조화와 상생의 문화, 평화와 소통의 문화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초기 남방불교 율장 집대성



팔리율 I~V
보운 스님 국역/ 혜안
I · II권 각 4만원, III권 5만원
IV권 5만5000원, V권 5만원

팔리경전은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구전한 것을 토대로 기원전 1세기에 스리랑카에서 경율론 삼장 전체를 팔리어로 엮어 전승한 경전이다. 현재 남방불교의 중심에 서 있는 〈팔리율〉은 북방불교의 5대 광율(廣律)인 〈오분율〉 〈사분율〉 〈십송율〉 〈마하승기율〉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형태를 갖춘 율장이다. 19세기 말 영국의 팔리성전협회에서 전체 5권으로 영역해 결집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제1권은 마하박가, 제2권은 출라박가, 제3과 4권은 비구와 비구니의 수타 비방가, 제5권은 파리바라로 구성됐다. 한역 율장과 비교해 본다면 마하박가와 출라박가는 한역의 건도(犍度)이고, 수타 비방가는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이며, 파리바라는 부수(附隨)로서 강요(綱要)에 해당한다.

최근 도서출판 혜안이 간행한 〈팔리율 I~V〉는 그간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십송율〉 〈마하승기율〉 등 초기 북방불교 율장들을 국역하는 작업을 해온 조계종 교육아사리 보운 스님이 남방불교 율장을 〈남전대장경〉의 분류체계를 인용해 대분류로서 제1권부터 제5권으로 나누어 국역한 것이다. 2022년 〈팔리율 I〉을 처음 간행한 데 이어 2023년 말 〈팔리율 V〉를 마지막으로 남방불교 율장 국역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쾌거이며, 나아가 2013년 근본설일체유부의 율장을 국역한 이래 10년간 초기불교 율장의 국역이라는 큰 원력을 세워 용맹정진한 보운 스님의 대장정을 일단락 짓는 결실이다.

보운 스님은 "한역 율장에 회향을 마치고 경장 번역을 준비하던 때 〈팔리율〉의 계목과 구성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해 진보된 율장의 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도움이라도 주고자 새롭게 번역을 발원했다"면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인도 초기불교의 계율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그 핵심 사상과 내용들은 오늘날 승가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할 유용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로 출가한 보운 스님은 문학박사로 '통합종단 이후 불교의례의 변천과 향후 과제'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술로 〈신편 승가의범〉 〈승가의계〉 등이 있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계율)를 역임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친절한 해석 담긴 삼국유사 번역서



삼국유사
흥법 · 탑상편
일연 스님 지음
신대현 번역/ 2만 5000원

우리의 고대사 연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기본이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를 정사로 보지 않지만 그래도 〈삼국사기〉가 담아내지 못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단군 신화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신화와 설화, 그리고 방대한 양의 불교와 민속 신앙 자료가 한데 아우러져 있다.

이런 최고의 역사 문화서이지만, 지금까지 〈삼국유사〉 번역서는 대부분 원문의 충실한 번역과 여기에 어려운 용어에 관한 간단한 설명 정도에 그친 형태였다.

불교미술사학자인 번역·해설자 신대현 교수는 평소 "불교미술을 연구하려는 사람이라면 〈삼국유사〉를 들고 현장을 찾아갈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좇아, 〈삼국유사〉를 수십 번 넘게 읽으며 공부했다.

그 결과 이 책에서 '흥법'을 통해 삼국의 왕이 어떤 연유로 해서 불교를 알게 되었고,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었는지 해설하고, '탑상'을 통해 일반 독자들이 우리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섬세한 해설들을 서술했다.

특히 '흥법·탑상' 이야기들에 얽힌 유적과 유물 사진들을 지면에 풍부하게 넣은 점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신중일 기자

지금 이 시대, 왜 인간 붓다인가?
붓다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가르침을 남긴 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경전 속 붓다의 삶은 신비로운 만능의 존재가 아닌, 우리처럼 괴로움과 고군분투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붓다의 인간적인 면모는 현대인들이 삶의 길을 찾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금 '인간 붓다'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와 설화를 걷어낸 율장 속 붓다의 참모습
인간 붓다
이중표 역해
248쪽
23,000원
불광출판사 신화 02) 420-3200 I www.bulkwang.co.kr I 불광미디어

개, 고양이, 물고기, 송아지, 앵무새, 낙타 등 다양한 동물이 주는
치유 효과들에 대한 생생한 사례집
이 책의 저자 발터 뫼비우스는 독일의 저명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접한 동물과 사람 간에 맺어진 우정을 통해 아픔과 불행이 치유되는 사례들을 관찰해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했다.

금강 스님, 한국동물매개심리료학회 김옥진 교수, 〈노견일기〉 정우열 작가 추천!
사람을 치유하는 반려동물 이야기
나보다 널 더 사랑해
발터 뫼비우스, 아름가르트 베란 지음
양삼승 옮김
200쪽, 16,000원

더 큰 가치 위해 움직이는 현명한 '원로' 되기



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듦의 기술
코니 츠바이크 지음
권은현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3만원

혼란스럽고 막막할 수 있는 노년
내면 단단하게 준비하는 법 제시
내면 장애물(연령주의) 인식 극복
은퇴 · 질환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노년', 인류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닐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노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책 〈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듦의 기술, 이하 나이듦의 기술〉은 노년기를 개인적인 성장과 영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길 제안한다.

한국인 기대수명 83.6세의 시대, 60대에 직업에서 은퇴하거나 가족에서의 역할을 끝마친 뒤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꽤 긴 시간을 더 살아야 한다. 일의 후광을 벗고 누군가의 배우자나 부모도 아닌 시기. 누군가에겐 혼란스럽고 막막할 수 있고, 익숙한 루틴과 자기 효능감이 사라져 사회에서 설 자리가 줄어든 듯 느껴질 수도 있다. 〈나이듦의 기술〉은 그 시간을 풍성하게 보내자고 이야기 한다.

책이 말하는 '풍성하게 보내자'는 이야기는 늙어서도 성실히 일하자거나, 그저 젊게 살자는 것이 아니다. 청년과 중년을 지나 새롭게 맞이할 인생의 후반기를 각자의 나이와 그 시기에 가능한 방법과 의미로 채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영웅적으로 삶을 끌고 나가던 중년까지의 태도에서 이제는 '나'라는 한 사람의 완성, 성숙한 공동체 형성과 환경보호처럼 더 큰 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현명한 '원로'가 되자는 것이다. 과거의 역할을 뒤로 하고, 외부에서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다. 노년을 맞이하는 어른들을 위한 마음공부이다.

〈나이듦의 기술〉은 그 과정에서 무의식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삶의 유한함을 직시하기 위해 외면만 아니라 내면도 단단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부 '신성한 전령'에서는 나이듦의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 같은 내면의 장애물(연령주의)을 인식해 극복하고, 은퇴와 질환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



2부 '인생의 회고와 회복'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삶에 밀려난 창의력과 재능, 영성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3부 '영웅에서 원로로'에서는 지혜로우며 '나'보다 거대한 대의를 위해 봉사하는 원로의 삶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마지막 4부 '삶의 완성'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생을 완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제시한다.

"신체적·정서적·도덕적·인지적·영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서 노화는 우리의 다음 개척지이다. 나이듦의 신비와 두려움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직면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면의 도구를 제시하려 한다. 인생의 후반기를 진정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노년기는 청춘과 중년이 지나가고 남은 잔해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정신없이 달리도록 만든 직업, 가정 부양,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난 해방기에 가깝다. 인생 2막, 황혼, 새로운 시작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간 무의식의 그림자에는 젊은 날 거절당했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특징과 감정, 아직 발현되지 않았거나 이루지 못한 재능과 능력이 숨겨져 있다. 〈나이듦의 기술〉은 오직 노년기에만 가질 수 있는 넓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찾아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 코니 츠바이크는 프랑스 파리 생트안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이자 긍정심리학 전문가이다. 불안증 및 우울증과 같은 정서 장애 치료를 전문으로 했으며, 그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은 마음챙김 명상과 긍정심리학을 활용한 재발 방지 분야에 힘썼다. 2000년대 초반 심리치료에 명상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 인지행동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파리 제10대학교에서 강의하며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는 프랑스 공영 라디오 채널 '프랑스 앵테르(RFI)'에서 매주 명상과 마음챙김 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라서 참 다행이다〉 〈불안을 넘어설 용기〉 〈나답게 살아갈 용기〉 〈새로운 뇌 사용법: 나를 치유하는 뇌〉 등이 있다.

"적극적인 삶 노력하면 저절로 지혜 생겨"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스님 지음
김이레 그림
정토출판 펴냄
1만6천8백원

청년들의 불안이 날로 깊어간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남들처럼 성공해야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다.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욕구는 계속되지만 그것들은 점점 어렵기만 하다.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미래는 불안하다.

오늘의 청년들은 경제적 풍요가 성공으로 대변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 주변은 물론이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 같은 것은 없다. 달리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 불안한 것이다. 불안해서 또 달리고, 달리면서도 늘 불안한 삶으로 인해 청년들이 시들어가고 있다.

책 〈방황해도 괜찮아〉는 법륜 스님이 불안한 삶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혜안의 설법이다. 7년 만의 개정 증보판이다.

"청년들의 고민을 모은 책, 〈방황해도 괜찮아〉가 출간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전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분야가 빠른 속도로 생겨나면서 세상이 복잡하게 변하다 보니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고민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흔들리기도 하고,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직업 전망이 어떻게 변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들에게 다가온 새로운 고민을 같이 나누기 위해 책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방황해도 괜찮아〉는 지금 당장의 고민 해결을 위한 이야기부터 대중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까지 모두 담았다.

법륜 스님은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청년들에게 "생각하지 마라. 행동부터 해라"고 조언한다.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절망하거나 실망할 틈이 없다. 오히려 계속되는 도전이 삶에 대해 늘 적극적인 자세를 길러 준다. 적극적인 삶을 살기 노력하다보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는 게 법륜 스님의 생각이다. 박재완 기자

젊은 수행자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고뇌



사랑하며 용서하며
향봉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7천원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 싶어 괜시리 세상이 적막해옴을 뼈끝으로 느끼기 마련이요, 미운 자도 보내고 나면 울컥 서러워지듯 일생을 편집해온 지난날의 발자취에서 오자와 탈자 줍기에 괜히 마음마저 휑하니 구멍 뚫린 듯 울적해지기 마련입니다."

1979년에 출간된 향봉 스님의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의 개정 복간판이 출간됐다. 1991년 증보 개정판 이후 33년 만이다. 원고지 500매의 새 원고가 더해졌다.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젊은 수행자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고뇌로 가득하면서도,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전해진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오랜만에 옛글의 향수에 깊이 젖을 수 있는 기회이다.

현재 70대 중반의 향봉 스님은 여전히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그만큼 당당하고 거침이 없다. 오현 스님의 추천사에서 보듯 젊은 시절 그는 분명 '커다란 불덩이'였음이 분명하다. 〈사랑하며 용서하며〉의 글들은 대부분 향봉 스님이 20대 후반에 쓴 글이다. 뜨겁다 못해 타오를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고 안아주고 싶을 만큼 애처롭기도 하다.

향봉 스님의 글은 가감이 없고 꾸밈이 없다. 문장은 수려하지 않지만 흡입력이 있다. 날것 그대로이면서 가슴을 후벼 판다. 그런데 아프지가 않다.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특별한 것은 향봉 스님의 투명한 진솔함이다. 그 어느 것도 숨김없이 소위 '맞짱'을 뜬다. 수행자의 체면이나 위선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자유와 깨달음에 대한 갈망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만 있을 뿐이다.

45년 전에 처음 나온 책이 지금 시대에 유효할까? 여타의 고전들이 그렇듯 재미와 감동, 그리고 독자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지혜와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그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박재완 기자



대장경 연구에 대한 독보적인 책!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에서부터 티베트,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의 전래와 그들 지역에서의 경전 수용과 번역, 변용의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 편/박용진 · 최종남 역/신국판/388쪽/값 25,000원

마음에 관한 가장 깊고 치밀한 탐구!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현대 심리학의 개념인 인간의 '정서'와 '인지'를 유식학의 관점에서 논하고, 나아가 양자를 비교 분석하여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안환기 지음/신국판/340쪽/값 23,000원

'클래식'과 '불교'를 융합하는 독창적 시도!
클래식, 경계를 넘어
'보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클래식과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이 만나 엮어내는 심포니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김준희 지음/국판변형/240쪽/값 20,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문수보살 지혜는 ‘계율’서 나온다”



혜총 대종사는… 1945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스님은 보경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양산 통도사에 출가한 뒤 대율사인 자운 스님을 40여 년 동안 지극 정성으로 시봉하였다. 1956년 통도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범어사 승가대학,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불교신문〉 사장으로서 문서포교의 일익을 담당했으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으로서 어린이 포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불국토이사장으로 복지활동에도 매진했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조계종포교원장, 대각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종정 표창장, 포교대상 공로상, 국민훈장 동백장,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6월 25일 조계사에서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를 친견했다. 가사 장삼을 수하고 대웅전에 들어간 혜총 스님은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린 뒤 필자를 조계사 인근의 전통찻집으로 안내했다.

온화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까닭에 혜총 스님을 뵙자마자 “인자하면 뜻에 혼란이 없나니 자비가 제일가는 행이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 복은 한량없으리라”라는 〈법구경〉 구절을 떠올렸다.

‘광명진언’을 암송하는 이유는

혜총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기 전에 ‘광명진언(光明眞言)’을 염송했다. 스님은 법문에 앞서 항상 광명진언을 암송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필자가 그 이유를 묻자 혜총 스님은 자신의 출가인연에 대해 털어놨다.

“제가 출가하지 않으면 단명할 팔자라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는 저를 양산 통도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거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운 스님은 어린 제게 적멸보궁에 가서 3000배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따지듯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3000배를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자운 스님께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업이 있다. 절을 올리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란다. 오늘 네가 3000배를 하면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운 스님이 시키는 대로 적멸보궁에 가서 3000배를 올렸습니다. 자운 스님은 미리 준비한 마니가사(摩尼袈裟:조수가 없이 하나로 된 가사)를 제게 건넨 뒤 사미계와 보살계를 내려주었습니다. 당시 자운 스님이 제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광명진언(光明眞言), 발일체업장근본득생정토다라니(拔一切業障根本得生淨土陀羅尼), 아미타불종자진언(阿彌陀佛種子眞言)을 독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혜총 스님은 광명진언의 공덕에 대해 “비로자나불의 광명이 비추면 마음이 절로 밝아진다”며 “살아 있는 사람들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고, 망자들을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진언”이라고 설명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이라는 광명진언에서 ‘바이로차나(Vairocana)’는 비로자나불을 의미한다. 광명진언의 영험에 대해 신라의 원효 스님은 “광명진언을 몇 차례 듣기만 해도 모든 죄업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사료에 따르면 원효 스님은 그릇에 흙을 담아놓고 광명진언을 108번 외우는 방식으로 영가들을 천도했다고 한다.

‘발일체업장근본득생정토다라니’에 대해 스님은 “모든 업을 소멸하는 것이 곧 극락세계에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총 스님은 ‘아미타불종자진언’에 대해서는 “아미타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계실 때 48가지 원을 세우셨다. 48가지 원 중에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불러도 업장이 소멸돼 이생에 있으면서 극락의 복을 받고 죽어서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서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혜총 스님에 따르면 자운 스님께서 평생 동안 수행한 진언이 ‘아미타불종자’ 진언이었다고 한다.

지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법
계율 지켜야 비로소 성불 가능해
악업 짓는 순간 세상은 오탁악세

자운 스님 “광명진언 독송” 가르침
출가 후 70여 년 동안 지키며 살아
“비로자나 광명 비추니 마음 밝아져”

“염불수행자는 마음이 청정해야 합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비심, 희사심, 지계심, 인욕심, 겸허심, 평등심, 일체심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생에 지은 선악의 업만 남게 됩니다. 나쁜 업을 지었으면 악도(惡道)로 가고, 착한 업을 지었으면 선도(善道)로 가고, 염불을 하는 업을 지었으면 극락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오계 내지는 십계를 받아서 지키는 가운데 극락왕생을 발원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부모님, 나아가서는 조상님께 세간의 효와 출세간의 효를 동시에 행해야 합니다. 세간의 효는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봉양하는 것이고, 출세간의 효는 부모에게 염불을 권하여 정토에 왕생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시피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게를 통해서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세월이 쏜 화살처럼 빠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맹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혜총 스님은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계와 보살계를 받으면서 속으로 ‘내가 이 스님을 40년 동안 시봉하리라’라고 다짐했고, 실제로 혜총 스님은 출가한 이튿날 다짐한 대로 40여 년 동안 자운 스님을 모셨다. 오랜 세월 자운 스님을 모시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총 스님은 “내가 자운 스님을 모신 게 아니라 자운 스님이 나를 모셨다”고 회고했다.

계율 지키는 것이 佛法 실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율사인 자운 스님에게 배운 까닭에 혜총 스님은 불자의 첫째 덕목으로 계율을 지킬 것을 꼽았다.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계(持戒)는 ‘계율을 지키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계율을 지킬 때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분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귀천이 나눠진다’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행동’은 다름 아닌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오탁악세(五濁惡世)가 되고, 역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혜총 스님은 중국의 오대산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오대산의 현통사(显通寺)와 영축총림 통도사(通度寺)의 통(通) 자가 같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알자 스님은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행장이 떠올랐다. 자장 율사는 문수보살의 주석처인 오대산(五臺山)에 머물렀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을 만나 석가모니가 입던 가사 한 벌과 바리때 하나, 부처님의 정수리뼈와 치아사리를 건네받았다.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귀국한 자장 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바로 통도사였다.

“저는 현통사와 통도사의 통(通)자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무엇이 통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마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수보살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계율에서 오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포교가 수행, 수행이 포교…부처님 법 전하자”

12면에 이어

제5대 포교원장 역임하며 포교 매진
법정 · 대행 스님, 이 시대 부루나 존자
“부처님 제자라면 수행, 포교는 기본”



2011년 11월 3일 제5대 포교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혜총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혜총 스님은 필자에게 물었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곳곳에 편재(遍在)해 있지 않을까요?”

말을 마친 혜총 스님의 표정은 더없이 여여(如如)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율사였던 자운 스님의 가르침도 이 세상에 두루 편재해 있음을 알기 때문이리라.

혜총 스님은 자운 스님을 모신 복덕으로 성철, 청담, 향곡, 운허, 월하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맥(禪脈)들에게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지관, 월운, 홍법 스님 등 강백의 동량들과도 반연을 맺을 수 있었다.

꼭 알리고 싶던 두 스님과의 인연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혜총 스님이 꼽는 이 시대의 부루나는 법정 스님과 대행 스님이다. 혜총 스님과 법정 스님의 인연은 해인사에서 싹 텄다. 당시 법정 스님이 해인사에서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었다. 글을 쓰느라 여념이 없는 까닭에 법정 스님은 새벽예불이나 대중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대중생활을 하지 않는 법정 스님에 불만을 느낀 혜총 스님이 자운 스님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스님, 대중생활에 수시로 빠지는 법정 스님을 왜 그토록 아끼시는 겁니까?”

그러자 자운 스님이 인자한 말투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정 스님은 조계종단을 위해서 큰일을 할 동량이다. 그러니 너는 법정 스님을 잘 모셔야 한다.”

법정 스님의 방에는 천장까지 인문학 및 사회과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방에 놓인 전축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원고지들을 보고서 혜총 스님은 법정 스님이 할 불사가 다름 아닌 문서포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친해진 두 스님은 함께 화단을 가꾸기도 했다. 대구에 가서 코스모스 씨를 사온 뒤 해우소 주변 잡초가 우거진 곳에 씨앗들을 뿌렸다. 가을이 되자 피어난 코스모스들이 부는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렸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것 같은 코스모스 꽃밭에서 법정 스님은 혜총 스님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산에는 꽃이 피네.” 먼 훗날 법정 스님으로부터 〈산에는 꽃이 피네〉를 받고서 혜총 스님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입니다”라고 말했고, 법정 스님은 “올해도 가을이 되면 해인사에 코스모스가 피어나겠지요”라고 대답했다. 이런 오랜 인연에 보답하기 위해 법정 스님은 혜총 스님이 법문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를 출간했을 때 추천사를 써줬다.

혜총 스님이 대행 스님을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로 꼽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혜총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마음선원에 가서 대행 스님을 친견했다. 혜총 스님이 “대중 포교를 위해서는 불자 예술인 단체와 불자 체육인 단체의 설립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러한 원력을 실현하기에는 종단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 말을 듣고서 선뜻 대행 스님이 3억 원을 쾌척해줬다. 대행 스님이 후원해준 재원으로 태릉선수촌과 펜싱경기장 법당을 개원할 수 있었고, 체육인불자회도 설립할 수 있었다. 당시 체육인불자회 회장을 추대된 사람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전 중앙신도회장)이다. 대행 스님이 후원해 준 덕분에 결과적으로 불자체육인들이 결속할 수 있었고, 중앙신도회도 조직이 확대되고 체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혜총 스님은 포교원장 재임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의 108개 전통사찰이 각기 다른 스포츠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것을 계획했다. 이를테면 월정사는 양궁 템플스테이, 범어사는 태권도 템플스테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와 정부 부처와 체육단체가 합심해서 계획했던 전국 전통사찰의 스포츠 템플스테이는 안타깝게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대행 스님이 스포츠 템플스테이 계획을 듣고서 무척 기뻐하셨어요. 나중에는 이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했고요.”

큰일하려면 하심할 줄 알라

평생에 걸쳐 전법포교에 매진한 혜총 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님을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불교를 깊이깊이 들여다보면 수행과 포교, 두 가지 뿐입니다. 이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포교원장 재직 당시 슬로건을 ‘포교가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고 정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포교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하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도 선언에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수행과 포교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불자에게 당부할 말씀”을 부탁하자 혜총 스님은 “큰일을 하려면 하심(下心)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그 실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들었다.

범어사 부주지 재임 시 혜총 스님은 노무현 인권변호사와 만났다. 친분이 생긴 두 사람은 바둑을 즐겼다. 같은 급수였지만 몇 차례 수담(手談)을 나눠보고서 자연스럽게 혜총 스님은 백을, 노무현 변호사는 흑을 잡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패는 동일했다.

혜총 스님이 한 점을 깔고 두자고 제안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노무현 변호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혜총 스님은 “큰일을 하려면 하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던졌다. 이 말을 듣고서 노무현 변호사는 자못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부부는 감로사를 여러 차례 찾았다. 마지막 방문 때 혜총 스님은 부부에게 광명진언을 독송해준 뒤 “청와대에 가거든 부처님을 잘 모시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대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라고 밝혔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유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혜총 스님은 “불자라면 마땅히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자운 스님에 대한 회고와 찬탄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저는 세납과 법랍이 높은 구하 스님이 자운 스님에게 예를 갖춰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어른스님을 대하듯 극진했죠. 제가 구하 스님께 이유를 여쭙자 스님은 ‘자운 스님은 나의 은사스님인 경월(慶月) 도일(道一) 스님이 다시 환생한 분이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혜총 스님은 환생이라는 말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구참(久參)이 되고나서야 혜총 스님은 구하 스님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꽃이 진 자리에 다시 꽃이 피어나듯이 죽음 뒤에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스님의 저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는 책 제목은 자운 스님이 혜총 스님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성이 맑다”는 한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서 혜총 스님은 꽃과 나무를 가꾸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산야에서 묘목들을 캐서 화분에 심어 가꾸는 분재 취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운 스님을 모시고 며칠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분재의 나무들이 모두 말라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혜총 스님이 슬퍼하자 자운 스님이 물었다.

“네가 꽃을 사랑하느냐?”

혜총 스님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혜총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자신이 가지를 치고 뿌리를 자를 때 얼마나 나무는 아팠을지 깨닫게 되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자운 스님이 말을 덧붙였다.

“꽃이 너를 사랑할 때까지 너는 꽃을 사랑하지 말라.”

혜총 스님의 가슴에는 자운 스님을 모셨던 기억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남아 있으리라.

유응오 / 작가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 할인 | 승복, 가방 50% 가구, 병풍 30%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자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원백 20개 80,000원
홈초돈타래 40개 80,000원

파라핀 1BOX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⑬ 조계산 송광사

▶한줄 요약
사람들이 '보조 국사가 송광사를 다시 찾을 때 살아날 것'이라고 전하는 것은 가르침을 전해줄 스승이 그리워서가 아닐까. 18분의 스승에서 나머지 두 분의 스승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까. 혹 벌써 두 분의 스승이 다녀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과거 16분·미래 2분 스승이 佛法 펼칠 승보종찰

두 분의 스승은 언제쯤 오실까

전남 순천 조계산 송광사는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이다. 고려의 보조 국사(1158~1210)를 포함한 16분의 나라의 스승(國師) 및 훌륭한 스님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사전(國師殿)에는 나라의 스승이었던 16분 스님들의 영정이 있다.

송광사는 신라말 혜린 선사가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송광산 길상사였다. 그 뒤 보조 국사 지눌 스님이 길상사를 중창하였다. 길상사는 50여 년 동안 버려진 상태였다. 스님은 팔공산 거조사에서 길상사로 정혜결사를 옮겨와 수선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근처에 정혜사라는 절이 있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산 이름도 조계산으로 바꾸었다. 뒤에 절 이름도 송광사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조계산 송광사다.

송광사(松廣寺)라는 절 이름에는 승보사찰다운 재미있는 풀이가 있다. '송(松)'은 '十八(木)+公'을 가리키는 글자로 18분의 큰스님을 뜻하고, '광(廣)'은 불법을 널리 펴는 것을 가리켜서 18분의 큰스님들이 나서 불법을 크게 펼 절이라는 풀이다. 현재 16분 나라의 스승이 나왔으니, 앞으로 두 분의 스승이 더 나와 불법을 펼치리라.

한편 송광사라는 절 이름에는 보조 국사와 연관된 전설이 있다. 스님이 정혜결사를 옮기기 위해 터를 잡을 때, 모후산에서 나무로 깎은 솔개를 날렸더니 지금의 국사전 뒷등에 떨어져 앉았다. 그래서 그 뒷등의 이름을 치락대(鴟落臺)(솔개가 내려앉은 대)라 불렀다. 이 전설을 토대로 최남선은 송광의 뜻을 솔갱이(솔개의 사투리)라 하여 '솔갱이 절'이라 풀이하였다. 또는 일찍부터 산에 소나무(솔갱이)가 많아 '솔메'라 불렀고 그에 유래해서 송광산이라 했다. 산 이름이 절 이름으로 바뀌어 송광사가 되었다.

조계산 송광사의 절 마당에는 탑이 없다. 송광사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연꽃 모양이다. 둘러싼 산은 연못에 뜬 연꽃이고, 송광사는 연꽃의 중심이다. 연꽃 중심인 송광사에 돌로 된 탑을 세우면 연꽃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기 때문이다. 절과 산을 별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추 잎사귀 좀 잡아주시게나

송광사 경내로 들어서는 계곡 길은 참으로 걷기 적당하다.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다.

두 스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송광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선방에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으며 정진하고자 하는 발걸음이었다. 계곡 길을 들어서자 마음은 벌써 선방에 앉아 있었다. 이번 한 철 정진을 다짐하며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때 계곡에 배추 잎사귀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송광사에서 떠내려온 듯하였다. 배추 잎사귀를 보고서 한 스님이 말하였다.

"시주자가 정성스럽게 올린 공양물을 저렇게 버리다니, 이 절에서 배울 것이 없겠군."

"맞는 말일세. 시주자의 정성을 알지 못하는 절에서 무엇을 배우겠나. 우리 그만 발길을 돌리세."

두 스님은 발길을 돌려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 순간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네들, 거기 떠내려가는 배추 잎사귀 좀 잡아주시게나."

노스님이 배추 잎사귀 하나를 쫓아 절에서 뛰어 내려왔다. 두 스님은 계곡에서 배추 잎사귀를 건져 노스님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채 노스님과 함께 절로 향하였다.

송광사뿐만 아니라 여러 절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다. 근래 송광사에 계셨던 스님들의 일화에서도 시주자의 정성을 생각하는 가르침이 있다.

어느 날 구산 스님(1910~1983)이 공양간 구석구석 살피는데, 마침 수채에 밥풀 몇 알이 떨어져 있었다. 구산 스님은 바늘을 꺼내더니 밥풀 하나하나 찍어다가 물에 헹구어 먹었다. 이후 공양간에는 밥풀 하나도 흘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였다. 구산 스님의 은사였던 효봉 스님(1888~1960) 역시 바늘로 수채에 있는 밥풀을 먹었다. 쌀 한 톨에도 수많은 이들의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우화각과 능허교.

스승 기다리는 마음 담긴 도량
시주자 정성 생각 가르침 일화
시줏돈 사용 반듯함 엿보이기도


고향수.

다리 밑 용이 엽전을 물고 있는 까닭은

배추 잎사귀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순천 송광사 계곡을 오르다 보면, 어느덧 일주문에 도착한다. 일주문 왼쪽으로 발걸음을 조금 옮기면 사진에서 자주 보는 풍광이 나온다. 돌다리, 누각, 그리고 계곡물이 어우러진 이곳은 송광사에서 아름다운 풍광 가운데 하나다. 일주문 밖 징검다리에서 바라보는 돌다리 풍광이 최고다.

돌다리의 이름은 능허교(凌虛橋)다. 돌다리 밑을 보면 용이 있다. 물론 이 용은 물길을 통해 절 안에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제압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자세히 보면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에 엽전이 철사에 꿰어 매달려 있다. 이 엽전에는 절 살림의 반듯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1707년(숙종 33년) 돌다리를 세울 때로 추정한다. 다리 불사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한 푼 두 푼 시주를 받았다. 이렇게 모인 시줏돈으로 불사를 마치고 보니, 엽전 세 냥이 남았다. 공사는 끝났지만 남은 돈이 문제였다. 시주받은 돈을 다른 일에 쓰는 것은 호용죄(互用罪)로 계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돌다리 아래 손이 닿지 않는 용머리에 철사를 꿰어 남은 돈을 매달아 두었다. 훗날 돌다리를 보수하거나 새로 건립할 때 보태 쓰도록 한 것이다.

시줏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시주자는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불사를 할 때는 예산을 짜고 그것에 맞게 모연(募緣)을 한다. 모연은 불사에 필요한 재물을 시주하도록 권하고 의뢰해서 인연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시줏돈을 함부로 하여 구렁이나 소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여러 절에 전한다. 그만큼 시줏돈은 무서운 것이다.

고사목이 다시 살아난다면

일주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7m 정도의 고사목이 있다. 이는 보조 국사가 꽂은 향나무 지팡이가 자라난 것이라 전한다. 그런 나무가 언제인가 죽어 고사목이 되었는데, 보조 국사가 송광사를 다시 찾을 때 살아날 것이라 한다. 그런데 구산 스님은 〈석사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송광사 정원에 고향수(枯香樹)가 한 그루 서 있다. 그 안내판에 이렇게 씌어 있다. '아생여생(我生汝生)하고 아사여사(我死汝死)라.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런데 이 글이 잘못 전해져서 보조 국사가 다시 살아나면 고향수도 살아나는 거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다. 자성을 발견할 때에 자기 자신이 생사를 초월하면 우주 만유가 동시에 생사를 해탈하기 때문에 '내가 살면 너도 산다(아생여생我生汝生)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미혹할 때에는 주객이 분리되고 깨달을 때에는 주객을 초월하여 격외인(格外人)이 되는 것이다.

구산 스님의 말씀과 달리 사람들이 '보조 국사가 송광사를 다시 찾을 때 살아날 것'이라고 전하는 것은 가르침을 전해줄 스승이 그리워서가 아닐까. 18분의 스승에서 나머지 두 분의 스승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까. 혹 벌써 두 분의 스승이 다녀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있었듯이. 아니면 지금 스승이 옆에 있는 데도 아상(我相)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지도.

〈불교학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열 근적외선 피부침투율 원적외선의 12배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사용전 사용후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0호 | 15 | 전면광고

나 여래는 오직 길을 가리킬 뿐이니
그 길을 따라가고 가지 않는 것을
나인들 어찌하겠는가.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 부지 : 3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 18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토지 안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약수암
- 대지 : 1,000평 (주차장, 호남고속도로 3k, 도로포장됨)
- 건물 :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임야 : 6정보(18,000평). (1500평 전답으로 사용, 소나무 20년생 40,000주, 교육연수원·수목장·납골당 개발가능, 마을인접지역은 전원주택 개발가능)
- 가액 : 5억원

010-3758-8039 / 010-5211-99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30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 매매가 70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5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0억원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 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물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시가이하로 7억5천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 건평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7억 5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 1길 33-12
- 대지 : 320평 법당15평 요사40평 별채15평(건물 미등기)
- 난방 : 가스
- 가격 : 1억 내린 2억9천(급매)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1억(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파주, 문산 지역
- 비어있는 사찰!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사찰을 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 법사님을 찾습니다.
- 파주시 파주읍 바리골길 260-227

010-4069-5315
010-2344-7304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90호 | 16 | 전면광고

전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다.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민불종 무료장학대학원

기초에서 천문신공까지 02-903-5858

9월 개강, 재택, 재, 사, 암 모바일교육
접수 즉시 교재 필도구 배송, 예습 가능 시험도

*장학위원 교수 후원인도 기다림 02-904-3375

모든 문의 총무원 010-2693-771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밀양 재악산 영산재 학인모집

의식 및 사물. 대금. 태평소
전통의식에 관심있으신분
많은동참바랍니다.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밀양시 초동면 영원사

010-3156-2211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⑬ 극품의 차는 어땠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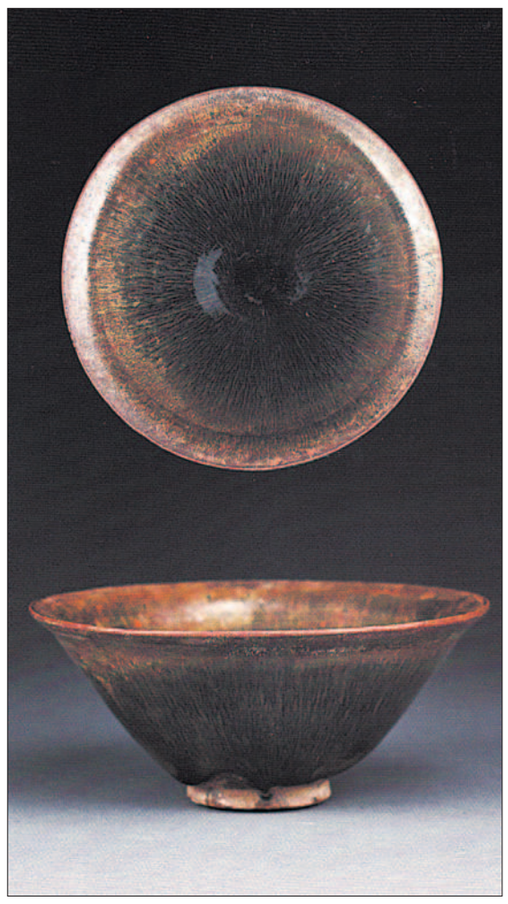
한반도 제다 주도 그룹은 '도당구법승'

차는 지인과 나누는 귀한 선물로, 이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나 우정, 이상적 삶을 지향하는 의지를 공감하는 사이였다. 그러므로 임금이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에게 차를 하사한 것이며 수행승이 도가 높은 스승에게 차를 올렸고, 수행이나 수신을 함께 하려는 사람끼리 나누는 정다운 선물이다. 이런 차의 순기능을 공감한 미담은 여러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불교를 통해 한국에 소개된 차는 수행승이 문인에게 보내는 귀한 예품으로 서로 간의 격의 없는 우의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차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승속을 불문하고 속 깊은 통유의 미덕을 드러내는 증표였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를 극명하게 품고 있는 차를 주고받았던 사실은 우리의 풍속을 순화시킨 정심음료로, 삶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드는 원천적 에너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이로움을 줬던 극품의 차를 만들던 실체는 어디였을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차에 대한 이해와 열망에 따라 더욱더 정밀한 향미와 기세를 드러낸 차를 만들어 차를 만드는 기법이나 유형에 변화를 가져왔으니 이는 바로 덩이차(餠茶)에서 단차로 발전되었고 단차에서 더욱 정밀한 공정을 가미한 연고백차가 출현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산차(잎차)가 만들어졌지만 이를 음용하는 방법은 가루차를 만들어 점다(點茶)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극미한 차에 대한 욕구는 차를 만드는 공정 과정의 치밀성이 요구되고 채다 시점도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맥아나, 작설처럼 여리디 여린 차의 싹이 필요했다. 이런 송대 음다의 흐름은 고려시대도 동일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단차와 연고백차가 유행했으며, 극품의 차에 대한 수요는 사원 수행승과 왕실 귀족, 문인으로 집약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고려에서는 다소(茶所)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제다를 주도했던 그룹은 차에 밝았던 '도당구법승'이다. 9세기 회당사신 대념에 의해 당에서 차의 씨를 들여온 이래 차를 가꾸고 만들던 신라 시대 차의 주도 세력은 도당구법승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용 차를 공납하는 다소(茶所)가 만들어져 집약적이고도 전문화된 숙련 제다인에 의해 좋은 차를 공급 받았을 것이니 극품 차의 생산처는 왕실과 사원 등으로 양립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극품의 차의 생산이 왕실과 사원으로 집약된 경향은 신라나 고려 시대처럼 중국의 당송 시대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런 사실은 선종 사원의 수행승이 좋은 차를 만들었고, 이에 영향을 받았던 육우가 제다를 집대성한 사례가 그것이다.



북송대 건안 흑유 토호 찻잔.

차, 수행승이 문인에게 보내는 귀한 예품
극품의 차, 승려 · 왕실 귀족 등에 집중돼

이후 새로운 극품의 차를 만들었던 주도 세력은 황실용 차를 만드는 어다원(御茶園)이 조성된 10세기 말 이후 큰 변화를 보인다. 바로 새로운 명차의 생산을 주도하는 그룹으로 황실이 부상되는데, 이는 11세기 송나라 정위(丁謂)가 황실에 진상한 대용봉단(大龍鳳團)과 채양(蔡襄, 1012~167)에 의한 소용봉단(小龍鳳團)의 출현에서 드러난다. 결국 송나라에서는 차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리를 파견해 좋은 차를 만들었는데, 이는 건안(혹 건주) 지역이 새로운 명차산지로 부상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런 차의 산지에서 생산된 명품차를 상징하는 차로 세상에 회자되었는데, 몽정차나 육안차, 쌍정 일주차 등이 그것이다. 11세기 인물 채양은 차의 품평에 능한 전문가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런 사실은 하수방의 〈다동〉 '능인석봉생(能仁石縫生)'조에서 확인된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군모는 차를 잘 선별한다. 건안 능인원에는 차가 석봉 사이에서 자라는데, 스님이 (이 차를) 따서 차를 만들어 8덩이를 얻어 석암백이라 불렀다. 석암백 여덟 덩이 중에 네 덩이는 채군모에게 보내고 네 덩이는 한림 왕우옥에게 보냈다.

섣달 그믐날 채군모가 소환되어 대궐로 돌아왔는데, 우옥이 차를 갈아 채군모를 대접했다. 채군모가 찻잔을 들고 아직 맛보지도 않았는데, 문득 말하길 이 차는 능인의 석암백과 매우 비슷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우옥이 그 말에 반신반의하여 차를 담은 봉지를 찾아 확인하고는 곧바로 채군모의 말에 수긍했다.(蔡君謨善別茶。建安能仁院有茶生石縫間, 僧採造得茶八餠, 號石岩白。以四餠遺蔡, 四餠遺王內翰禹玉。歲除, 蔡被召還闕, 禹玉碾以待蔡, 蔡捧甌未嘗輒曰:此極似能仁石岩白。禹玉未信, 索帖驗之, 乃服)

채군모는 채양의 자(字)이다. 복건성 선유현 사람으로 차에 밝았을 뿐 아니라 글씨와 문장에도 탁월한 재주를 지녔다. 경력 7년(1047) 복건로전운사(福建路轉運使)로 제수되었으니 이는 복건 지역의 차를 관리하는 관리로 부임된 것이다. 건안은 복건성에 위치한 지역으로 능인원은 승려들이 수행하는 선원이다. 그런데 건안의 능인원에는 석봉 사이에서 특품의 차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차의 싹으로 만든 차를 석암백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귀한 차를 차에 밝은 인사에게 선물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능인원 스님들은 능인원 석봉 사이에서 나는 차로 만든 여덟 덩이차를 채군모와 왕우옥에게 보낸 연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이어지는 글에서 드러나는데, 바로 채군모와 왕우옥이 차에 밝았던 애호가였기 때문이다.

특히 왕우옥(1019~1085)은 섣달 그믐날 복건 전운사에서 수도 대궐로 복귀한 채군모를 위해 직접 차를 갈아 대접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채군모가 얼마나 품다에 능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낸 대목은 바로 그가 차 맛을 보지도 않은 채 찻잔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능인원의 석암백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실제 왕우옥은 채군모의 이 말에 반신반의하여 차를 담은 봉지를 확인한 후에야 채군모의 품다 실력의 출중함에 경탄을 금하지 않았으리라. 동시대의 인물 채군모와 왕우옥은 오묘한 차의 세계를 드러낸 명차가 생산되었던 시기에 차를 즐긴 문인들이 서로의 깊은 우정을 차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감동의 여운이 긴 미담이라 생각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㉖

1. 사성제(四聖諦)는'괴로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불교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 중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를 지칭하는 용어는?

① 집성제 ② 고성제 ③ 삼성제 ④ 팔정도 ⑤ 멸성제

해설 : 사성제(四聖諦)는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苦聖諦),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집성제(集聖諦),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멸성제(滅聖諦),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도성제(道聖諦)의 네 가지 진리를 말한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집성제를 말한다.

2. 사성제 중 팔정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멸성제 ② 도성제 ③ 집성제 ④ 고성제 ⑤ 팔성제

해설 : 팔정도(八正道)는 말 그대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란 뜻으로 도성제에 속한다.

3. '중도 사상'의 의의를 바르게 말한 것은?

① 대립과 갈등 ② 조화와 균형 ③ 신앙과 믿음 ④ 파괴와 창조
⑤ 시작과 종말

해설 : 중도란 양극단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 마치 현악기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당기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지만, 줄을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조화와 균형을 잡아 당긴다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①, ④, ⑤의 보기는 양 극단을 표시한 것이다. ③의 경우 불교에서 신앙과 믿음은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4. 8정도(八正道)에 대한 서술로 바른 것은?

①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설명한 것이다.
②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법이다.
③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에 입각한 열반 성취의 길이다.
④ 해탈의 길은 오직 고요한 명상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⑤ 몸으로 행하는 실천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정신수행만을 강조하는 수행법이다.

해설 : 팔정도(八正道)는 사성제(四聖諦)를 이루는 고성제(苦聖諦), 집성제(集聖諦), 멸성제(滅聖諦), 도성제(道聖諦) 중 도성제를 말한다.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은 사성제 전체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팔정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이며,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은 팔정도의 목표가 아니다. 해탈의 길은 고요한 명상과 뛰어난 지혜가 함께할 때 가능하며, 몸으로서의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등은 팔정도의 구성항목을 이루고 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인식으로 이는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5.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성제 : 열반에 이르는 길이며, 구체적 수행방법으로 8정도 수행을 제시함.
② 멸성제 : 모든 괴로움과 그 원인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열반이나 해탈의 상태.
③ 고성제 : 인간의 현실은 절대 괴로움이 없다는 것으로 착각에 의해 괴롭다고 생각함.
④ 사성제 : 괴로움의 모습과 그 원인을 밝히고 괴로움이 사라진 세계와 그에 이르는 길을 밝혀줌.
⑤ 집성제 : 괴로움은 우연히, 또는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지와 집착및 탐욕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해설 :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그 고통이 아예 없다는 것은 불교의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다.

6. 불교는 평안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바른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한다. 팔정도의 덕목 중 '자신에게도 이롭고 사회에도 유익한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① 정견(正見) ② 정정(正定) ③ 정명(正命) ④ 정업(正業) ⑤ 정사유(正思惟)

해설 : 팔정도는 바른 관찰인 정견(正見), 바른 생각인 정사유(正思惟), 바른 언어생활인 정어(正語), 바른 생활인 정명(正命), 바른 행동인 정업(正業), 바른 노력인 정정진(正精進), 바른 기억인 정념(正念), 바른 집중인 정정(正定)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에게도 이롭고 사회에도 유익한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즉 자신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정명을 말한다.

정답 : 1. ① 2. ⑤ 3. ⑤ 4. ③ 5. ③ 6.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frac{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⑫ 동원 스님의 사과 냉면

▶한줄 요약
뽀얀 노란빛의 사과즙 위에 얌전히 앉은 냉면, 그 위의 붉은 오이무침과 아보카도 한 조각까지, 도무지 맛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재료가 합을 이룬다.



떨어진 사과 한 알에 깃든 '자비 방편'

"사찰음식 교육이란 어찌 보면 불가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일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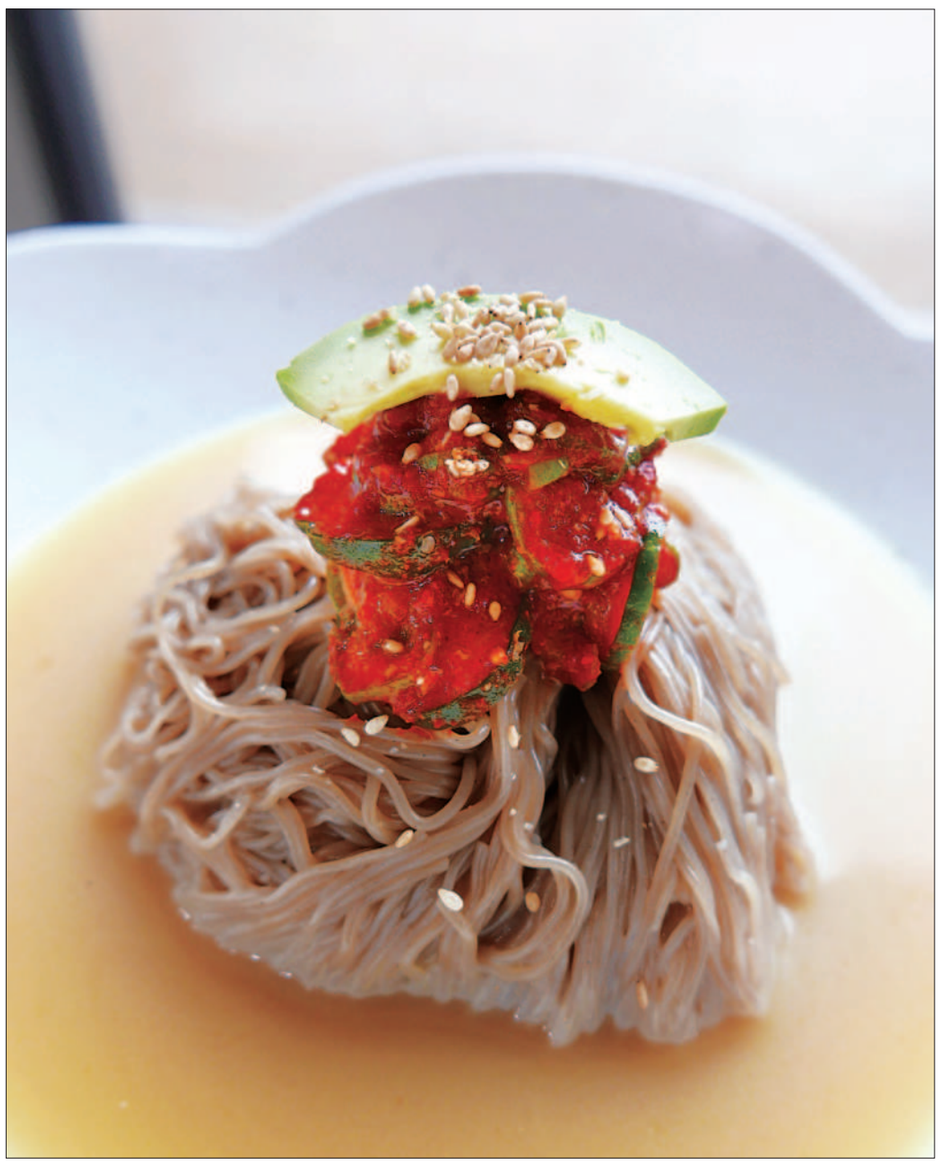
불과 5분 전까지 두 시간에 걸쳐 사찰음식 강의를 마친 동원 스님의 담담한 한 마디에 슬며시 눈이 커졌다.

자리에 한 번 앉을 새 없이 썰고, 다지고, 삶는 과정을 시연하고, 커다란 목소리로 과정을 숙지시키는 것. 쉼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도 수강생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최선의 답을 해야만 하는 120분의 퍼포먼스. 스님은 방금까지 그 시간을 홀로 오롯이 채우고 오신 참이었다.

"오관게에 나와 있듯이 불가에선 음식의 맛을 탐하지 말고, 수행을 위한 약으로 여길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찰음식 교육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맛있다, 저렇게 하면 맛이 더 좋아진다 하고 수없이 말하게 되거든요(웃음)."

동원 스님의 이야기에는 오랜 시간 '도마를 경전으로' 삼아 걸어온 지난 여정, 그 안의 숱한 문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찰음식이 참 좋은 포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 인생사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성격, 종교는 저마다 달라도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으니까요. 서로의 벽을 허물기에 먹고 사는 이야기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사찰음식은 불법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문턱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큰 나무가 타는 법

방편(方便).

중생의 교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가르치는 이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배우는 이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불가의 방편이다.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기 위한 동원 스님의 수업은 '맛있는 약'을 전하기 위한 이 시대, 오늘의 새로운 방편인 셈이다.

동원 스님이 사찰음식과 연을 맺은 것은 수원의 봉녕사에서 도감 소임을 맡아 살던 때. 어른스님들의 강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찰음식 전문가 자격증을 딴 것이 시작이었다. 대중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고, 이후 10년간 머물렀던 봉녕사를 떠나 동국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도 어언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법당보다 공양간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웃는 동원 스님. 그 웃음에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맞닥뜨렸던 고민과 깨달음의 농축된 시간이 전해진다.

"꽤 긴 시간 대중 살림을 맡고, 또 공양간에 머물다 보니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함께 출가한 스님들은 어느새 염불도 하고, 법문도 하는데 저는 예불 한 번 함께 하기도 힘들었으니까요. 매일 콧구멍이 시커멓게 되도록 가마솥에 불 때서 음식 준비만 하니 이거 뛰쳐나가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나름 심각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천지개벽하듯 뒤집힌 것도 결국은 공양간이었다.

"하루는 서글픈 마음에 산에 올라 한참을 울었는데, 또 공양 시간이 다 되니 밥걱정이 들어요. 슬그머니 내려와 큰 가마솥에 물을 한가득 받았지요. 그 물을 데우려니 또 그만큼 큰 나무를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내가 미쳤었구나! 하고."

큰 나무는 저 몸 하나로는 결코 타오르지 못함을. 보잘 것없이 마르고, 이리저리 발에 차이는 저 마른 솔가지가 함께 몸을 태워주지 않으면 어떤 불길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스님은 보았다. 마음이 밝아진 순간이었다.

희한하게도 그날부터 매일 보던 양배추가 말을 걸고, 가지와 호박이 저마다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무심히 흘려보낸 뭇 생명들이 또 다른 스승이 된 시작이었다.

"저 푸성귀 하나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여태 다른 곳만 보느라 못 듣고 못 봤구나. 그걸 알고 나니 자부심이 생겼지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사과의 방편

몇 년 전, 동원 스님은 태풍으로 같은 지역 과수 농가들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망연자실한 농부의 모습을 접한 뒤, 안타까운 마음에 고민하여 만든 메뉴가 바로 '사과 냉면'이다.



동원 스님의 사과 냉면

재료 사과 생즙 150ml, 오이 반개, 소금, 설탕, 식초, 고춧가루, 깨, 참기름, 겨자.

만드는 법
1. 오이를 얇게 썰어 끓는 소금물에 부어 놓는다. 잠시 후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한 후 분량의 양념을 1ts 씩 넣어 잘 버무려준다(사과즙 제외).
2. 사과 생즙에 식초, 설탕, 소금, 겨자를 1/2 ts 넣고 연하게 간을 한다.
3. 그릇에 미리 삶아둔 냉면을 담고 국물을 부어준다. 오이 고명을 얹어준 뒤 통깨를 뿌리면 완성.

"반드시 생착즙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간 실온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김치 할 때도 사과를 갈아서 넣는데, 사과즙을 넣어도 김치 맛의 차이가 크게 없을 만큼 활용도가 높아요."

낙과(落果)를 이용해 과즙을 만드는 농가를 찾고, 매 강연과 행사, 방송 섭외가 들어왔을 때도 어디서나 사과 냉면을 소개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도, 이웃과 더불어 동분서주하며 지냈던 그 계절은 달큰한 사과 향기로 남아 머문다. 이제 매해 여름이 돌아오면 삭발하는 날마다 스님은 이 사과 냉면으로 한 철 무더위를 날린다.

"이 냉면은 면보다 국물이 우선입니다. 사과즙을 이용한 것이니 건강에 좋지요. 여러 음식을 낼 때는 입가심 국수로 마지막에 내는 것도 좋아요. 딱 떨어지는 맛이 꽤 괜찮습니다."

뽀얀 노란빛의 사과즙 위에 얌전히 앉은 냉면, 그 위의 붉은 오이무침과 아보카도 한 조각까지, 도무지 맛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재료가 합을 이룬다. 과연 맛은 어떨까?

먼저 냉면을 한입 넣으니 슴슴한 면발 뒤로 사과의 은은한 단맛과 향기가 상쾌하게 밀려왔다. 얇게 썰어 소금물에 꼬들꼬들하게 데쳐낸 오이 고명은 이 메뉴의 화룡점정! 겨자와 고춧가루, 분량의 양념에 슬쩍 무쳐 짭짤하면서도, 칼칼한 맛은 달큰한 맛이 무뎌질 즈음 절묘한 한 방을 날리는 것이다. 끝으로 한 조각 아보카도의 감칠맛이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를 해준다.

맛과 향은 물론 비타민 B군과 구연산, 사과산 등 풍부한 유기산으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사과. 떨어진 사과 한 알에도 새로운 방편이 있음을, 이 향기로운 냉면 한 그릇에서 다시 찾는다.

향기 없는 물이 되어

"스님들이 정말 국수하는 날을 좋아하냐고요? 공양간에 웃으며 들어오기만 할까, 하루종일 공부가 안되는 걸."

사중의 살림을 맡아 하던 시절, 대중들이 공양 시간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었다.

여름이면 메밀국수, 겨울에는 뜨끈한 김치말이 국수. 그 곁에 따끈한 튀김을 곁들여 내는 날이면 선물을 받은 것처럼 설레하던 스님들의 모습. 알타리 김치가 너무 맛있다며 아침 공양에 올려달라고 슬그머니 부탁을 받은 다음 날, 새벽 발우공양 하는 스님 100여 명이 동시에 내던 '오도독, 오도독' 김치 씹는 소리. 고요한 대방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던 그 소리에 다 함께 웃음을 참던 기억도. 또 직접 만든 손칼국수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던 묘엄 학장스님의 옛 모습도 모두 귀하고 귀한 추억이다.

이제는 스님의 강의를 들은 청년들과 이웃 종교인들이 '스님의 수업을 듣고 불교 교리 강좌를 신청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진수무향(眞水無香) 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참된 물은 향기가 없다는 뜻이지요. 여러 색을 잘 내려면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낼 줄 알아야 하니까요. 힘들기도 했지만, 실패도 하고 고민도 많던 지난 시간이 있어 진짜 내 안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찰음식이라는 방편을 통해 자신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전하고 싶다는 동원 스님. 그 꿈을 위해 이제는 향기 없는 물이 되어 붉은 열매 한 알을 다시 곱씹는다.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진짜 사랑을 하려면 마음으로 항상 같이 불이 들어오게 관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아무튼 태양이라든가 그 옆에 수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이 우주라든가 또는 은하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결부돼 있거든요. 결부돼 있는데, 만약에 어느 것이 수명이 다 돼서 타 버린다든가 팽창된다든가 이런다면 우리 이 지구에 붙어서 사는 생명체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같이 전멸하게 되는 이치가 또 있다 이 소립니다.

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뿐만 아니라 불성의 세계 모든 데서 자동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면서 이게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작용하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에서, 아니 한국이라고 합시다. 일본도 그렇고 영국이나 뭐, 다 있지마는,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면, 조그마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마는 큰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딴 데서는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물에 없어지기도 하고, 불쑥하게 솟았던 것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가라앉았던 게 불쑥 솟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붙을 데 또 그냥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잘못 어긋나게 붙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고 온통, 때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움죽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체도 움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리드해 나가는데 어떻게 리드해 나가야 되느냐? 부처님 법은 이렇게 한다도 없고 저렇게 한다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고정되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닥치는 대로 대치해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다 하고 하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그대로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대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아파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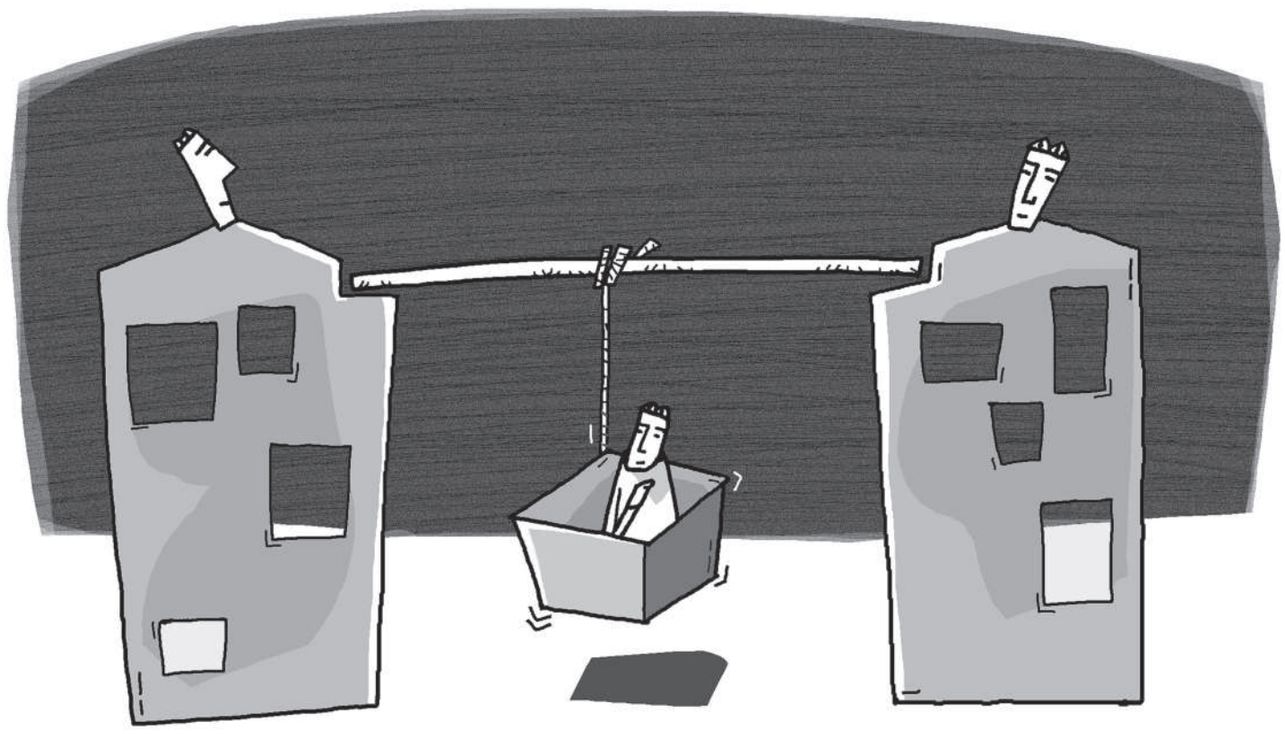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삼풍백화점에 그 난리가 난 것도 바깥으로만 끄달리고 자기 콩씨는 짐작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침착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벌써 이런 공부 하는 분들은 진짜로 자기 콩씨를 믿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무너지게 짓지도 않겠지만 어느 옆이 잘못됐으면, 벌써 통하게 되죠. 통하질 못하면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그냥 보여 줘요.

이런 예가 있죠. 집을 짓는데 이 공부 하는 사람의 꿈에 그러더랍니다. "야! 이쪽이 잘못됐으니까 이쪽을 봐 봐. 가서 봐 봐. 거기를 한번 이렇게 헤치고 봐 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가 딱 그냥 모래하고 양회가 같이 들어가서 콱 메워져서 그냥 요지부동이더랍니다. 그거를 만약에 다 해놓고 그랬으면, 집 반쪽을 다 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주 탄복을 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부 하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다고 아주 그냥 야단들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게 뭐 있습니까?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혼자 먹지 않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서로서로 먹고 사는데. 이거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의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느 과목이든 들어가지 않는 과목이 없어서 심성천체물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禪)과 학(學)은 둘이 아닙니다. 몸과 자기 불성도 둘이 아닙니다. 콩씨와 콩 싹이 둘이 아니듯이 떼려야 뗄 수가 없죠, 그거는. 콩 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 싹이 없으니깐요. 진짜로 "아이고, 나는 바빠서 할 사이가 없어서 못 합니다." 요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하하하. 그럴 때 보면요, 난 저절로 웃음이 나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허허허. 아니,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게 자기가 태어났으면 콩씨가 콩 싹을 형성시켜서, 자기가 또 콩씨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고는 살아나가는데 아이 글쎄, 누가 백일기도를 하랬나, 누가 삼천배 절을 하랬나, 응?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앉아서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서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관하고, 앉으나 서나 변소에 가나, 더럽고 깨끗한 게 불법엔 없으니까, 변소에 가나 어딜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냥 통하는데 뭐가 바빠서 못 합니까, 글쎄. '난 아이, 바빠서.' 하하하.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만 끄달리던 분들도 안으로 관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내가 있으니깐 모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콩씨와 콩 싹은 떼려야 뗄 수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자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선업으로 자식이 생기는 일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면, 자손들도 원수로 태어났다면 말도 못 하게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또 선업으로 태어났다면 그 가슴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주어서 흥락하게 만듭니다. 또 원수가 아니고 업장으로다가 만났다 이런다 하면, 극하게 그렇게 나가서 그냥 온통 그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녹이려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도 아니 됩니다. 말로 한다면 오히려 더 빗나가요. 아주 듣기도 싫어하구요. 그리고 만약에 때렸다 하면은 '아이, 요놈, 때렸어!' 하곤 그냥 또 나가죠. 허허허. 여러분 참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녹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 '업장이 생기게 한 것도 너고 업장이 안 생기게 한 것도 너고,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 같이 공했어. 나는 내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너만이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딱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기만 하라 이런 겁니다. 개미도 나가서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아는데 어찌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 살 궁리 안 하겠습니까?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집착만 하지 말고 죽는다 산다를 좀 떠나보세요

☞ 19면에서 계속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줘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몰라요, 귀한 거를 모르고. 얼마나 어려웁게 돈을 벌어서 사는지 그 자체를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사는 거죠. 그러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불이 들어오게, 항상 같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한방에서 같이 사는 식구인데 착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찌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사랑을 하려면 '너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너한테는 불이 안 켜지랴. 다 한마음으로서, 밝은 마음으로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바로 너뿐이 아니냐.' 하고 자꾸 관해 준다면 나갔던 놈도 그냥 기를 쓰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주인공, 주인공 이름만 찾고서 "아휴! 나갔던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아팠던 사람도 이렇게 잘 낫질 않습니다." 이러거든. 그래 "내가 의사냐?" 하하하. "내가 의사라서 그렇게 고쳐 주냐? 너한테 너 자체의 한마음이 천차만별로 화해서, 마음이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찌 의사는 안 되겠느냐? 아프면 의사가 돼 주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돼 주고, 또는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이 돼 주고, 가난하고 일이 생기면 관세음이 돼 주고, 물에서 사는 사람은 용신이 돼 주고, 조왕이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돼 주는데 뭐가, 뭐가 잘못됐느냐? 네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니까 너 알아서 해. 내가 만약에 할 줄 알아서 내가 해 줬다 하면 너는 아주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해 나가고 이렇게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허, 나도 애로가 없다고는 못 보나 때로는 이럽니다. '에이, 그냥 그럭하는 거, 그냥 자기 탓인데, 뭐,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어서 자기 탓으로 온 건데 그렇게 복잡한 거를 나한테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 그, 다 알아서 해.' 이러고는 팽개쳐 버리려도, 그렇게 마음이 울적했다가도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럽니다. '나 같은 사람 뭘 보고서 왔겠는가? 나의 고깃덩어리를 보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잘났든 못났든 그 마음이 아리따웁지 못하다면, 그리고 같이 한마음이 돼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보다도 자비가 없다면 내가 될 수 없고, 내 아픔이 될 수 없고, 내 도량이 될 수 없고, 바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없으니 어찌 내가 아니랴!'

한 사람을 건지려면 과거로 수백 번 돌아가고 수천 번 돌아갔다 오고, 이렇게 마음이 이런 짓을 해야만이 그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지어 가지고 현실에 모두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짐승으로 돼 있다거나 사람으로 돼 있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또 몇 집을 걸러야 되겠죠? 여러분은 알지 못하니까 '아,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나.' 하고 괴로워하시겠지만 괴로워할 것도 없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느 때든 내가 시원찮게 얘길 하더라도, 용어가 잘 되지 못해서 시원찮게 얘기를 하더라도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서 지혜롭게 들으세요. 그래서 아주 마음 깊이 지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질문자1(남) 큰스님, 큰스님의 크나큰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큰스님의 자비하신 말씀에 언제나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다시 큰스님의 자비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질문을 올리게 됨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왜 죽어가는 이 육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지요?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콩 씨를 믿고 콩 싹은, 예를 들어서 댁의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전체 살고 있는데 댁은 그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관리인이며, 즉 말하자면 집합소밖에는 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내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돌봐 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 줄 텐데 한마음이 돼 주지 않는다면 대뇌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대뇌에 통신이 돼야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집착만 하지 마시고 전체 주인공에, 말하자면 전체 주인공의 일이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댁의 몸뚱이 한 덩어리에 생명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산다면 한 덩어리가 한마음으로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체지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좀 마음을 넉넉히 써서 '네가 끌고 가는 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좀 맡겨 봐요. 그리고 죽는다 산다를 떠나 봐요, 좀. 네?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가 끌고 가는 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삼자인 내가 그렇게 애씁니까? 아, 생각해 봐요, 글쎄.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끌고 가는 집이 헐어졌으면 집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네? 이 집이 헐어졌으면 이 집 지은 사람이 고쳐야지, 왜 이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안 그래요?

질문자1(남) 그런데 왜 사람들끼리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타인을 헐뜯어야 하는지요. 이것도 이때까지 지내온 습과 인연의 소치인지요.

큰스님 뭐라고 그랬는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하하하

질문자(남) 왜 사람들끼리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타인을 헐뜯어야 하는지요? 이것도 이때까지 지내온 습과 인연의 소치인지요?

큰스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세상도 벌어졌고 상대성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가정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고 그런 건데,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남의 탓으로 돌리니깐 그렇죠. 기껏 투자를 해 놓고 그게 잘못되면 그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냥 가게도 기껏 얻어서 그게 잘못되면 네가 잘못해서 그랬느니 마느니 하고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이게 뭣들입니까? 이게 부처가 될 수 있는, 99%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의 탓을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입니다, 이거는. 그건 내 탓입니다, 다 각자. 아내가 잘못해도 그렇고 남편이 잘못해도 그렇고, 또 자식이 잘못해도 그렇고, 내 탓으로 돌려야 그 무질서한 업이 다 그냥 지워집니다, 싹 쳐 그냥. 그런데 그렇질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네가 벌었느니 내가 벌었느니 하고, 네 돈이니 내 돈이니 하고, 내가 했지 네가 했니 하고 이러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제일 등 가는 인간이 되어서, 제일 등 가는 부처로서, 제일 등 가는 에너지를 자유스럽게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량이 돼야죠. 마음의 도량이요.

>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의 탓을 해선 안 됩니다, 절대로.
> 자식이 잘못해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이 잘못해도 그렇고
>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 그 무질서한 업이 그냥 싹 다 지워집니다.

질문자1(남)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과 고통이 무엇인지 큰스님의 자비하신 법문을 재차 상세하게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욕망이 있고 착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 생명까지도 다 팽개쳤다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요. 이 하늘이 지금 당장 무너져서 그냥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허허! 그래?' 이러고 웃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러고 웃게끔 될 수 있어야 그거를 (손바닥으로 허공을 받쳐 보이시며) 떠받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진정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속히 그저 콩 싹이 콩씨를 알아서 영원토록 그 콩씨로 인해서 모두 먹고 콩씨가 되남고, 또 먹고 되남아도 영원하리라고, 끝 간 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이죠, 뭐. 그냥은요, 여러분이 걱정이 있다고 그러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뭔 걱정이 있을까? 지금 당장 그냥 밥을 굶는다 해도 '허어, 밥 굶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달랑 나자빠지란 말입니다.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여) 저는 상파울루에서 진각사란 절에 다녔습니다. 전 큰스님 말씀마따나 갖다 빌고 내가 달라는 것만 알았지 제 마음공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큰스님을 알고부터는 제 마음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공부를 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스님 뵙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언니들도 있고 또 우리 동생도 있어서, 한마음선원이 너무너무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좋고 그러니 같이 가자고 제가 이끌고 큰스님을 한번 뵈었어요. 그런데 큰스님께서 "개같이 놀면 개로 태어나고, 사람같이 놀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마음 정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브라질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제 맘대로 잘 안되고 운영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는 법도 틀렸고, 모든 걸 둘로 보았습니다. 제가 주인공을 믿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둘로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큰스님 법문을 듣고 정식으로 이 주인공을 믿기 위해서 저를 이끌고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저는요, 마음을 내서 진짜 제 모든 사업이 잘되어 저도 물질이 따라서 지원을 꼭 내고 싶습니다. 큰스님, 마음 좀 내 주세요.

큰스님 잘해 봐요. 허허허. 댁이 잘하면 또 갈 수 있는 스님네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요. 댁네가 모두 잘하지 않는다면 스님네들이 있다고 해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댁네들이 잘하는 대로 스님네들이 생기는 거지, 허허허. 잘못하면 스님네들이 안 생기지. 그건 그릇대로 가는 거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7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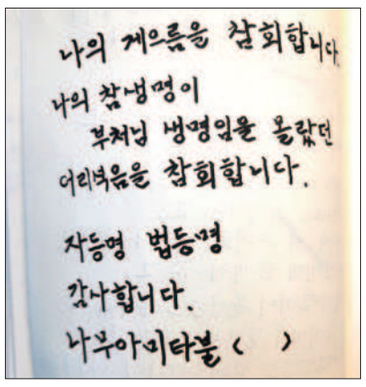
어렵고 복잡할 땐 무조건 '나무아미타불'

⑬ '좋은 생각이 나도 나무아미타불 나쁜 생각이 나도 나무아미타불'

아침마다 줌에서 공부하는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시즌4가 110여 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시즌5가 시작되는 7월까지 잠시 개인 정진 시간을 갖고 있다. 4년째 이어져 오는 공부지만 이번 시즌4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솔하였기에 각자의 소감을 법공양에 올렸다. 직장동료와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등 다양하게 펼쳐지는 일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법문에 의지해온 도반들의 법공양이 귀해 지면을 통해 회향하고자 한다.

지선(가명) 님은 〈금강경법문〉 책을 통해 태어나서 처음 금강경을 공부해본 것이었는데, '합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저는 78쪽에 '합장은 불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중생, 부처님은 부처,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중략) 겉보기에는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너와 내가 따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두가 한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합장합니다'라는 구절을 읽으며, 항상 왜 손을 모아 인사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어 좋았고, 특히나 한탑 스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나무아미타불', '불이(不二)', '합장'이 모두 하나로 이어진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이대로 답 없이 끝났구나'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과거의 뿌리 깊은 생각과, 불편했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해답을 찾은 듯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말 그대로 광명을 찾았죠! 이번 공부가 저로 하여금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임을 믿고 삼귀의해 불자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있는 수계법회가 정말 많이 기다려집니다."

이야기를 듣노라니 그날 공부 이후로 합장 인사할 때 다같이 "합~짱~!"하며 큰 소리를 내는 즐거운 인사법이 생겼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합장에서 나의 참생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찬탄의 마음이 일었다.



마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나 먼저 바뀌면 모든 것 편안해져

이어서 현아(가명) 님은 좋은 생각이 나더라도 "나무~!", 나쁜 생각이 나더라도 "나무~!"하면서, 본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항복 받아야겠다는 걸 배웠다고 했다. 작은 생각과 무심결에 일으킨 상념 하나에서도 현상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법문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고, 허망한 생각이 버려질 때 밝은 부처님생명만이 자신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한 이후로는 어렵고 복잡한 생각이 들 때 그냥, 무조건 "나무아미타불~~!" 소리내며 잘 '듣는' 염불습관이 생겼다고 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윤미(가명) 님도 소감을 전했다. "327쪽에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생명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바뀌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뀔 때 이웃이 바뀌고, 내가 바뀔 때 가족이 바뀝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눈에는 중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보면 모두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 의해서 교화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본래부터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법문이 제게는 이번 시즌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에요. 오로지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만 있을 뿐이기에,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불안함은 사라지고 저절로 안심이 되네요. 오로지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의 말과 행동으로 제가 무언가 참는 게 보이면, 이제는 아이들이 바로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해요. 그러면 온 가족이 그냥 웃게 되요. 이렇게 삶이 편안해질 수가 없네요."

그러자 오랜 세월 운영해온 사업체를 정리하는 쉽지 않은 과정에서 큰 공부를 하고 있는 수희(가명) 님이, 예쁜 손 글씨로 다짐을 적어 모두에게 선사했다. "저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참회합니다. 책임 전가와 근심 걱정, 원망과 미움을 용납하지 않으며 정진하겠습니다. 예불을 놓치지 않고 독경과 염불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뇌종양, 두려워 말고 올바른 치료를

⑲ 비극의 단골 메뉴 뇌종양(2)

뇌종양 치료: 수술

뇌종양의 주된 치료 방법에는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요법, 방사선수술 같은 방사선조사요법,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 추적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 등이 있으며 의료진은 이러한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일부 종양은 수술이나 방사선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지만 일부 종양은 수술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뇌종양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수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확히 종양의 종류를 진단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치료 방침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수술요법을 통하여 가능한 뇌신경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전 혹은 최대한 종양을 많이 제거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경 교종과 같이 악성도가 높은 경우나 뇌의 중요한 부위에 위치한 경우는 완전 제거가 힘든 경우도 종종 있어 추가적으로 방사선조사요법이나 화학요법 등을 함께 시행한다. 최근에는 신경 교종 등의 뇌종양 수술에 특수 편광 필터를 장착한 현미경과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5-ALA HCl)을 이용한 형광 유도 뇌종양 수술 방법을 활용하여 완전 제거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자의 생존 기간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상 뇌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하게 종양만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술 중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내는 자동항법장치(neuronavigation), 수술 중 영상 진단 장비, 수술 중 뇌신경 감시장치, 내시경 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뇌종양 치료: 방사선 수술

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뇌종양만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많은 첨단 기술과 의료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뇌종양을 포함한 여러 뇌질환 치료법 중 방사선수술은 대표적인 비침습적 치료법이다. 방사선수술은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초점은 불이 붙지만 초점 밖의 물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다. 방사선수술 장비를 사용하여 주변 정상 뇌조직에 대해서는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병변에 한 번(single fraction)조사하여 마치 개두술을 하지 않지만 수술하는 것처럼 한 번에 원하는 병변 만을 치료하는 것이 수술과 비슷하다고 하여 방사선수술이라고 한다.



수술로 종양 완전 제거 가능성 높아져
직경 3~4㎝ 미만엔 방사선수술 효과

방사선수술은 비침습적, 치료 즉시 일상생활 복귀 가능, 2~3시간 미만의 짧은 치료 시간, 뇌종양 환자에게 적용되는 산정특례제도가 적용이 되는 치료법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입원과 회복 기간이 요구되는 수술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수술은 매우 매력적이며 효율적인 치료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뇌종양 환자가 방사선수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돋보기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직경 3~4㎝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변 정상 뇌조직이 받는 방사선의 영향이 불가피하게 많아져 뇌부종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치료 가능한 크기에 제한이 따른다.

방사선수술 장비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ZAP-X 장비는 기존의 방사선수술 장비와 다르게 최초로 정교한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활용하여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에만 정밀하게 전달하면서 주변의 건강한 조직에는 방사선 노출을 극소화시켰다. 또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마나이프와 달리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치료 장비이며 부분 마취나 침습적인 머리 고정 장치 또한 불필요하다. 치료 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두꺼운 콘크리트 지하 벙커에 둘러싸여 있는 기존의 방사선수술 장비와 달리 세계 최초로 자체 방사선 차폐 기능을 갖추고 있어 환자가 넓은 유리창을 통해 외부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치료 중에는 장비에 있는 창을 통해 함께 의료진이나 방문한 가족이 가까이에서 환자를 볼 수도 있어 치료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뇌종양과 관련된 무서운 소문들이 많지만 소문일 뿐이다. 떠돌아다니는 낭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비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뇌종양 전문가와 치료의 여정을 함께 한다면 뇌종양은 더 이상 두려운 질환이 아닌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환자가 올바른 진단과 자신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뇌종양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양승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전법 일기

앙굴리말라도 正覺 이뤘다
재소자들에게 불교 전하자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안녕하세요? 대전교도소 복지 담당인데, 스님께서 교도소 교정활동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다음날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불교법회의 법문과 교리교육, 자매상담을 통한 도움을 요청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3대 종교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 불교의 도움이 가장 적어서 불자 수감자들이 가장 도움을 적게 받고 있다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였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한 끝에 불교대학 출신인 포교사들에게 교리를 부탁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무량회 회원들에게 자매상담을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절로 모셨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겁이 난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어려워들 하셨다.

그때 나는 부처님의 제자 중 '앙굴리말라'라는 제자의 얘기를 하였다.

"앙굴리말라는 희대의 악인이었고, 살인을 여러 번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출가 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기꺼이 자신의 업을 씻기 위해 수행했다. 앙굴리말라의 삶과 수행을 생각해 보면 부처님과의 만남과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적은 힘이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는가?"

수감자는 범죄인이다. 하지만 교화, 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 정착으로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교정교화의 주된 목적은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 범죄자의 성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정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건강한 이웃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비록 두렵고 어렵게 시작된 교화봉사 활동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은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이 "마음도 착하고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빠른 사회 복귀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갔으면 해요. 적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교정교화 도움에 힘쓰고 계신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통도사 전계사 우설 덕문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수계를 여법하게 봉행했다. 덕문 스님은 "수계법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죄업을 씻고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하셨다.

수계법회를 통해 계를 받은 50여 명의 수용자들이 참회 진언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도 수 만겁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설문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⑥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1)

나를 알고 싶다면 내면 욕망 알아야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그 층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instinct)'입니다.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식욕'과 '성욕'이라는 강렬한 본능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비둘기를 보면 하루 종일 먹이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연못의 한가로운 잉어들도 먹이를 뿌리면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개체유지'를 위한 강렬한 식욕입니다. 봄밤 골목에서 밤새 처절하게 울어대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짝을 차지하기 위해 온몸이 찢어지도록 싸우는 바다표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종족번식'을 위한 강렬한 성욕입니다. 동물들은 개체유지와 종족번식을 위해 그것이 채워질 때마다 뇌의 보상회로에서 쾌감이라는 강력한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고귀한 교양과 찬란한 문명을 이룬 우리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drive)'입니다. 인간은 본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관계를 위해 도덕과 윤리를 학습하고 본능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 억압된 본능에너지는 의식 저편에 숨어 '무의식적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괴물 같은 충동이 쏟아져 나올까 조마조마해합니다. 혹 자신이 미쳐서 이상한 충동이 새 나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의식과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라 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욕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
욕망 알면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충동 등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

세 번째는 '욕망(desire)'입니다. 욕망은 결핍, 혹은 틈을 메우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 그 비교를 통해 생긴 틈을 메우려는 마음이 욕망입니다. 뭔가 '금기'되어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길 때 그 틈을 메우려는 마음이 욕망입니다. 따라서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것이 본성입니다. 자꾸만 빈틈을 찾아다니므로 욕망이 이사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가진 좋은 운동화를 보면 그 운동화를 갖고 싶고,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는 다시 더 좋은 스마트폰, 더 좋은 게임컴퓨터를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 가는 갈증과 같아 '갈애(渴愛)'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love)'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기이한 욕망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채워지는 역설적인 욕망입니다. 주는 나도 행복하고 받는 상대도 행복한 유일한 욕망입니다. 주는 나만 행복하고 받는 상대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서운 집착이니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 숨어 사는 다양한 욕망을 살펴본 것은 내가 누군지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그 욕망을 알아차리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능, 충동, 욕망'을 성숙한 '사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에너지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나의 사랑 하나가 더해집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국가 행사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고, 보훈은 애국정신을 기리어 공훈에 보답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6월은 유난히 국가적 아픔이 많았다. 1920년 6월 6~7일 봉오동 전투, 1926년 6월 10일 6·10 만세운동,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198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등. 근현대사 주요 사건이 유독 6월에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매년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주최하고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주관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6월 22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됐다. 참석대중은 천도의식과 추모법회로 조국 독립과 평화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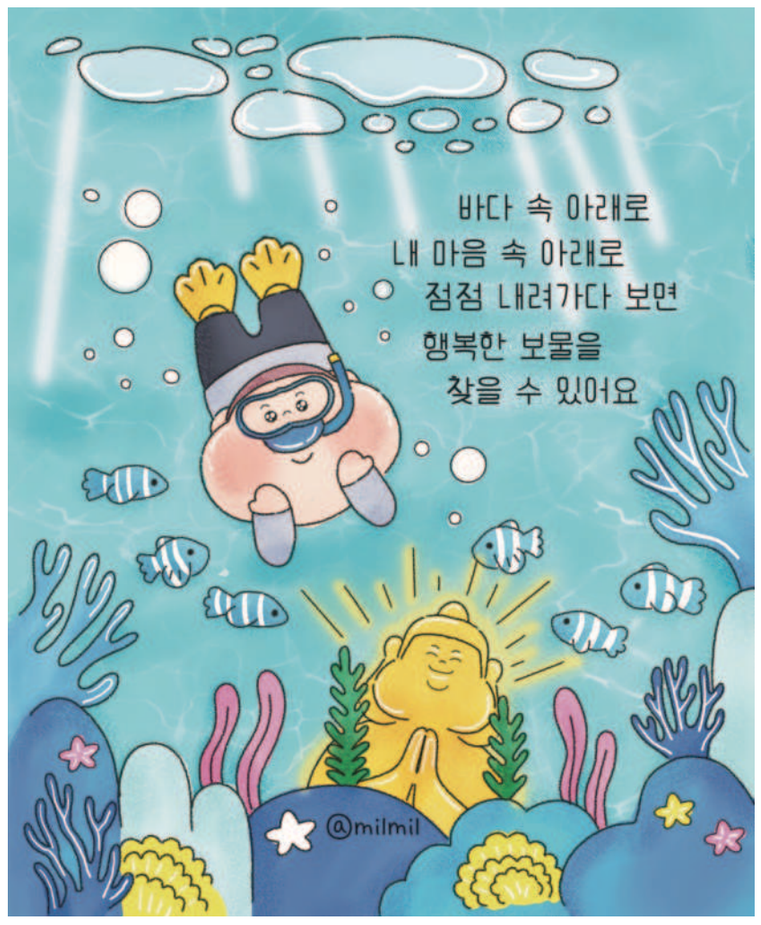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내년부터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종단이 주최하는 국가적 행사로 승격시킬 것을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숱한 위험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가 보존되고, 민족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한 건 나라를 지켜온 순국선열들 덕분"이라며 "(호국영령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땅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이같은 역사를 잘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 내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종단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나라를 지켜온 순국선열이 있어 가능했다. 진우 스님의 말처럼 국민 모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의 뜻을 되새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종단 차원 추모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급성 난소염으로 날아간
신혼부부의 단 꿈

방글라데시 줌머인 난민 수라보니씨 결혼 · 정착 위해 한국행
결혼 일주일만에 하혈 후 난소절제수술…병원비만 1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있다. 출가한 승려가 겪는 여러 인연들 사이의 고민과 번민을 표현한 탁월한 작품으로, 이 영화의 제목은 인연들에 의해 생겨난 무수한 일들이 윤회가 되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선(禪)적으로 말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인연(因緣)의 생기에 의한 연기법(緣起法)으로 논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하는 그러한 관계성에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이어진 인연의 사슬로 이어진 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마를 맞이한 지금의 모습은 이러한 연기적 법칙과 다소 다르게 다가온다. 연일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소식과 더불어 올여름의 더위는 작년보다도 매서운 폭염이 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소식만이 나온다.

우리는 그동안 생활의 편의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그러한 편의들이 언젠가부터 지금 겪고 있는 염려스럽고 불안정한 일상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지구 온난화, 쓰레기 문제, 바다 오염, 메탄가스 등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오늘 무섭게 내리는 장맛비나 타오르는 듯한 더위를 탓하고만 있다. 우리의 삶은 지구라는 하나의 법계(法界) 속에서 공존한다. 법계는 법

기록적 폭염·폭우 예상되는 올해
문제되는 기후위기는 연기적 결과
지금의 작은 실천이 변화 이끌어

으로 이루어진 세계로서,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이어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연기적 세상 속에서 나만의 편의를 위해 조금이라도 무분별하게 무언가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이치에 따르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순리가 아닌 역행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해마다 날씨와 환경에 관한 무서운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필자도 해마다 불교의 교리를 통해 경고의 글을 쓰고 있다.

연기법은 '어차피 그러한 결과가 온다면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식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자신의 의지(수행)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주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간다면 이것에 의해 저것의 결과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 문제도 오늘의 우리 자신을 기점으로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한다면 그 원인이 변화된 내일을 이끌어 올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편의를 위해 놓쳤던 것들이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기에, 바꿔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바뀐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시점에 환경도 더불어 바뀔 수 있다.

불교적 삶이란 업(業)의 힘에 의해 이끌려 살며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법(法)의 힘으로서 주체자가 되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주 작은 움직임일지언정 그것은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작은 실천이 우리의 내일과 내일의 우리에게 전달되는 법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어느샌가 다시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찾아올 것이다.

장애인 포교에 대한 단상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불교는 한 달에 한 번이든 일 년에 몇 번이든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도 누구에게나 사찰의 문이 열려있는 참 편안한 종교이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사찰들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외형적인 무장애 환경을 만들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 여행가들이 사찰 여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포교 측면 곳곳에서 아쉬움이 크다.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정 대상 포교에는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장애인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은 가뭄에 콩이 나는 것보다 더 드물다. 장애인 중에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장애인 대신 사찰에 문의해보면 99%는 장애인은 곤란하다는 답이 왔다. 템플스테이 공간에 경사로가 있는 방이 있지 않느냐 되물으면 장기로 머무는 사람이 있다거나 짐을 쌓아두는 곳이라는 게 담당자의 답이었다.

불자 장애인과 활동을 하다보면 장애인들에게 일상을 통해 불교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 불자에게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많이 만

장애인 위한 포교 프로그램 부족
비장애인 함께하는 계기 만들어야
장애인 불자 예술활동 독려 필요

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사람들의 명상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지난 4월의 불교박람회를 계기로 불교가 사회적으로 핫하게 뜨고 있다. 의식이 정례화된 어려운 불교보다는 우리 사회 문화 속에 불교 교리를 담아내려는 불교계 노력의 결과다.

일련의 변화를 접한 장애인들도 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심들을 장애인 포교의 하나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불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사찰의 공간이나 불교문화에 담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얼핏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약간의 생각의 전환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중들이 많이 오가는 사찰의 문화 공간 혹은 종무소에 불교적 정서가 담긴 장애 불자의 시 한 편을 액자에 담아 벽에 걸거나 사찰의 소식지에 시 한 편 싣는 일, 불교음악원이나 불교 관련 오케스트라 등에서 실력을 갖춘 발달장애 음악인을 객원 단원으로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이용료의 할인 등 그 종류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 불자에게는 장애 불자들의 문화 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불자가 아닌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불자들의 활동이 불교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 불교에 귀의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坐),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서 설법하실 때, 늦게 참석한 가섭에게 부처님의 자리 반을 내어주면 앉게 했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장애 불자들에게도 부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

社 說

'가산불교대사림' 완간에 부쳐

가산당 지관 대종사의 문자 사리 〈가산불교대사림〉이 완간됐다. 지관 대종사가 1982년 음력 5월 11일 서울 경국사에서 3000배 기도를 하며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을 발원한지 햇수로 42년만이다.

총 20권으로 완간된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에 수록된 표제어는 11만 9487항이며, 도판은 6197개체, 200자 원고지로는 34만 286매에 달한다. 당장 일본에서 간행된 〈망월불교대사전〉이 7136항, 대만의 〈불광대사전〉은 2만여 항임을 감안하면 〈가산불교대사림〉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연구인력은 원내 25인, 원외 20인이 참여했으며, 40년간 연인원을 환산하면 65만 7000명이 불사에 동참했다.

〈가산불교대사림〉이라는 대작불사는 지관 대종사의 발원과 함께 편찬실장 고옥 스님과 연구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관 대종사는 동국대 총장, 조계종 총무원장 재임 시에도 대사림의 원고를 놓지 않았으며, 1999년 1, 2권 출간을 시작으로 1~2년에 한 권꼴로 〈가산불교대사림〉을 내놨다.

지관 대종사의 〈가산불교대사림〉은 완간됐다. 이제는 세계 최대 불교대백과사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았다. 국회도서관,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것을 넘어 아카이브화 등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당장 네이버 등에서 불교용어 검색 시 제공되는 정보들이 '원불교 대사전'에 기인하는 황당한 경우가 많지 않던가. 지관 대종사의 유지를 선양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한 때다.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에 거는 기대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이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국대는 6월 26일 교내 정각원에서 '불교학생연합 발족 기념 6월 동국인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불교학생연합'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행연합 조직으로 회원이 2031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학생신행연합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들 학생연합은 오는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 축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 14개 단과대학과 일반대학원, 듀이카(구 전산원)에 불교동아리를, WISE캠퍼스에는 6개 불교동아리를, LA캠퍼스에도 1개의 불교동아리를 창립시켰다.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동국대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 흥행몰이부터 뉴진 스님의 인기까지 최근 한국불교는 젊게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은 주도적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원하는 신행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불교가 나아가야 할 '넥스트 스텝'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적지 않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이는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생연합이 대학생 전법을 선도하는 신행단체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몽골에서 부처님세상을 펼치다

자비의 행으로 큰 연꽃을 피게하다

자운. 월암 봉행위원장, 청명. 정인 추진위원장 대표 스님들과 붓다자비 힙창단, 육법공양, 의전원장 등 행사 준비추진 주역들


몽골 왕궁 귀빈 접견 모습.


몽골 왕궁에서 훈장증을 수여받는 장면.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단장 박정하).


몽골 부처님 오신날 최초 연등행렬.


울란바토르 희망의 나무심기 식재.


몽골불교협회와의 불교교류.


몽골국립대 장학금 지원 공로로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


몽골 부처님 오신날 최초의 연등행렬.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합창단(단장 최연호) 공연모습.


몽골정부 · 불교협회와의 MOU 후 기념촬영.


자운대종사


월암대종사


청명명사


정인명사


송운명사


대도명사


김재은 의전원장


이정희 의전원장


김수경 의전원장


박정하 봉사단장


최연호 합창단장


모미숙 이사


김미숙 이사


황은지 이사


최호연 이사


박민자 이사


신혜숙 이사


고윤희 이사


이영자 이사


이희숙 이사


류옥순 이사


이정희 이사


최보영 이사


김경덕 이사


신희정 이사


이희진 이사


송은아 이사


장주비 이사


박선미 이사


전옥근 이사

김영희 이사

김홍길 이사

황인필 이사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몽골불교협회에 몽골정부로부터 희사받은 5만여평에 녹색운동 희망의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실 보시공덕자를 모십니다. 세계불교법왕청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03158 Jongno-gu, sambong-lo 68 shinyoung B/D 3F (chungjin-dong) Seoul, Korea
大韓民國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Sanggaraja and Chairman Dr MOK TAK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도메인 세계 불교 법왕청 .kr
E-mail moktak1@naver.com